

연구보고 2007-09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미 화

공동연구자: 김 은 영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어린 시기의 경험은 일생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어린 영유아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하나의 합의는 없으나,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들에게는 교과목으로 분리된 구조화된 경험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통합된 활동을 자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현재 2만 9천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100만 명이 넘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요자의 선택과 요구에 의존해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진행하고 있는 주제와 상관없이 분리된 교과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많은 일선 보육시설들이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에 「표준보육과정」이 여성가족부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사지침’이 고시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7년도 현재 전국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보육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에서 바람직한 보육과정과 일과운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재정리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전화조사와 사례조사에 응답해 주신 보육시설의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9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욱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육과정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 보육시설들은 영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보다는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데 주력한 특별활동을 여과 없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2007년도 현재 전국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보육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정리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내용 이해
-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분석
-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보육전문가 견해 고찰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현황 분석

-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사례 조사
- 특별활동에 대한 보육현장의 의견 수렴

2.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가. 특별활동의 근거

- 보육시설에서는 관례적으로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등 보육 관련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의 보육비용 관련 규정에서 특별활동에 대해 언급된 곳을 찾을 수 있음. 한편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시행계획」에서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하여 금지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나.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을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이라고 정의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며,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의 별도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로 제한한 협의의 기준으로 분석함.

다. 선행연구 고찰

- 특별활동은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특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적합하지 않음. 많은 특별활동들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전문가보다는 특정 영역의 전담 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전체 일과와 독립적으로 진행

됨으로써 통합적인 보육·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음.
부모교육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해야 함.

3.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내용

가. 표준보육과정

-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나. 보육프로그램

-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함. 교사는 수시로 자신의 교수 행동을 평가해야 하며, 영유아들에 대한 평가 또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 바람직한 하루일과 운영사례

-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루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4개소의 하루 일과를 조사하고, 각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면담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4.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가. 특별활동 내용

- 연구대상 시설 중 95.4%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53.0%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을 위하여 특별활동비나 교재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음. 특별활동 종류는 1가지에서 10가지를 실시하는 시설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가지, 4가지, 1가지, 5가지 순서임.
-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 5세가 9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만 4세가 98.6%, 만 3세가 95.5%, 만 2세가 77.6%의 순서임. 한편 만 0세는 14.5%로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가장 낮았음.

나. 특별활동 운영 형태

- 전체적으로 선택보다는 의무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64.7%). 특별활동 담당자는 외부강사에 의한 경우가 60.3%로 보육교사가 담당 하는 비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특별활동을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에 모두 하는 경우가 31.5%, 오후 보육시간에 하는 경우가 23.3%임.

다. 특별활동 실시 이유

-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은 부모의 요구 때문(27.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24.4%)의 순서로 나타남.

라. 특별활동 비용

- 특별활동비를 받을 경우 특별활동 하나당 수납비용 평균은 15,591원으로 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평균 3가지 특별활동에 참가하고, 특별활동의 38%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수납한다고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약 18,000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보육전문가 견해

가. 영유아를 위한 특별활동의 방향

나. 특별활동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과제

다. 특별활동 실시상의 고려점

라.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각성과 보육시설의 인식전환

6. 요약 및 결론

-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있을 것임. 영유아기는 전 생애의 기초를 이루는 시기로서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모든 측면의 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므로 전인아동이 보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내용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보육현장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평가해야 할 것임. 결국 보육프로그램의 정상화, 내실화가 바로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개선을 위한 방향이 될 수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11
1. 특별활동의 근거	13
2.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15
3. 선행연구 고찰	17
III.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	25
1. 표준보육과정	27
2. 보육프로그램	31
3. 바람직한 하루일과 운영사례	45
IV.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63
1. 특별활동 내용	65
2. 특별활동 운영 형태	70
3. 특별활동 실시 이유	77
4. 특별활동 비용	79
V.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보육전문가 견해	87
1. 영유아를 위한 특별활동의 방향	89
2. 특별활동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과제	99
3. 특별활동 실시상의 고려점	107
4.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각성과 보육시설의 인식전환	116

VI. 요약 및 결론	121
참고문헌	127
부록	130

표 목 차

〈표 I-3-1〉 설립유형별·소재지역별·시설규모별 조사대상	6
〈표 I-3-2〉 보육 영유아 현황	7
〈표 I-3-3〉 설문지 구성	7
〈표 I-3-4〉 인터뷰 질문 문항	9
〈표 II-1-1〉 보육비용 관련 규정	13
〈표 II-1-2〉 유치원의 특별활동 금지 내용	14
〈표 II-2-1〉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	16
〈표 III-2-1〉 6~12개월 일과 운영의 예	35
〈표 III-2-2〉 13~24개월 일과 운영의 예	36
〈표 III-2-3〉 1세 일과 운영의 예	38
〈표 III-2-4〉 2세 일과 운영의 예	39
〈표 III-2-5〉 3세 일과 운영의 예	40
〈표 III-2-6〉 4세 일과 운영의 예	41
〈표 III-2-7〉 5세 일과 운영의 예	44
〈표 III-3-1〉 A 어린이집 영아 보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전략	45
〈표 III-3-2〉 A 어린이집 유아 보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전략	46
〈표 III-3-3〉 A 어린이집 만 4세 하루일과에 따른 활동 내용	47
〈표 III-3-4〉 B 어린이집 보육 목표	50
〈표 III-3-5〉 B 어린이집 만 3세 하루일과	51
〈표 III-3-6〉 B 어린이집 만 5세 하루일과	52
〈표 III-3-7〉 C 어린이집 만 0세반 연간 보육계획안	54
〈표 III-3-8〉 C 어린이집 만 1세반 하루일과 운영표	55
〈표 III-3-9〉 C 어린이집 만 2세반 하루일과 운영표	57
〈표 III-3-10〉 D 어린이집 하루일과 운영표	60
〈표 IV-1-1〉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비용유무	65
〈표 IV-1-2〉 유료일 경우 교재비와 활동비 유무	66
〈표 IV-1-3〉 연령별 특별활동 실시 비율	66
〈표 IV-1-4〉 실시하는 특별활동 개수별 현황	67
〈표 IV-1-5〉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	68

〈표 IV-1-6〉 특별활동 종류별 내용	69
〈표 IV-2-1〉 특별활동의 선택 여부	70
〈표 IV-2-2〉 유형별·연령별 특별활동 실시비율	71
〈표 IV-2-3〉 특별활동 담당자	72
〈표 IV-2-4〉 비용 유무에 따른 특별활동 담당자	72
〈표 IV-2-5〉 특별활동 시간대	73
〈표 IV-2-6〉 특별활동 실시장소	74
〈표 IV-2-7〉 외부학원 실시 특별활동 부모 소개 여부	75
〈표 IV-2-8〉 소개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	76
〈표 IV-3-1〉 특별활동 실시 이유	77
〈표 IV-3-2〉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	78
〈표 IV-4-1〉 특별활동비 수납방법	79
〈표 IV-4-2〉 특별활동비의 심의·협의 유무	80
〈표 IV-4-3〉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비	81
〈표 IV-4-4〉 특별활동 종류별 평균 특별활동비	81
〈표 IV-4-5〉 연령별 미술 특별활동비	82
〈표 IV-4-6〉 연령별 음악 특별활동비	82
〈표 IV-4-7〉 연령별 체육 특별활동비	83
〈표 IV-4-8〉 연령별 과학 특별활동비	83
〈표 IV-4-9〉 연령별 수학 특별활동비	84
〈표 IV-4-10〉 연령별 한글 특별활동비	84
〈표 IV-4-11〉 연령별 외국어 특별활동비	85
〈표 IV-4-12〉 연령별 교구이용 특별활동비	85
〈표 IV-4-13〉 연령별 기타 특별활동비	86
〈표 IV-4-14〉 특별활동 월평균 교재비	86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6월 현재, 전국의 2만 9천 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백 만 명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제각기 다른 보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 「표준보육과정」이 여성가족부령으로 공포되고, 2007년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사지침’이 고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며,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만 6세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돌보고 어떤 경험과 학습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교사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보육과정의 운영을 수요자의 선택과 요구에 의존해 온 보육시설이 많으며, 보육과정의 부재는 보육의 질을 낮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보다는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주력한 특별활동을 여과 없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보육이 무엇인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을 경험한 우리 미래인적자원이 될 영유아들이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특별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특별활동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는 첫째, 특별활동의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선택권, 발달권, 놀 권리 등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셋째,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상업성을 띠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산물이며, 넷째, 특별활동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다(우남희, 2004; 이영환, 2003; 이정화 외, 2003; 김영명, 서영숙, 2006).

특별활동의 실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과 보육현장의 입장 차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 차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충분한 인적 자원의 배치 등 특별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많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2007년도 현재 전국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보육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정리

특별활동의 근거와 개념 및 성격을 관련 자료를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행된 특별활동 관련 연구를 고찰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교사, 기관장, 유아의 인식과 특별활동의 내용, 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나.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은 무엇인지 표준보육과정과 보육프로그램에 담겨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보육활동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와 보육활동의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을 문헌고찰을 통해 담았으며, 바람직한 하루일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몇 시설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분석

특별활동의 실시 내용, 특별활동 운영 형태, 특별활동 실시 이유,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용에는 실시 여부, 종류, 내용, 연령별 참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특별활동의 운영 형태에는 의무와 선택 여부, 담당자, 시간, 장소, 학원 연계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특별활동 실시 이유와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 수납방법, 연령별·활동별 비용, 교재비 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라. 보육시설 바람직한 운영사례 제시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루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4개소의 하루일과를 조사하고 각 보육시설의 교사를 면담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마. 보육시설 특별활동 개선방안 제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현황 분석 내용에 근거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방안 내용을 담았으며, 본 연구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특별활동의 방향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특별활동에 대한 근거와 개념 및 성격 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 초등 교육과정 내용을 고찰하였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별활동과 관련한 그 동안의 연구 문헌을 고찰하고 정리하였다. 더불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표준보육과정과 보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1) 설문조사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보육시설 1,003개소이다. 전국의 보육시설을 설립유형별, 소재지역별로 10%를 유층 무선 표집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 34%(전체보육시설의 3%)의 응답을 받았다. 연구대상의 설립유형, 소재지역, 시설규모는 <표 I-3-1> 과 같다.

〈표 I-3-1〉 설립유형별·소재지역별·시설규모별 조사대상

단위: %(개소)

구분	조사대상	여성가족부 보육통계(2007.6)
전체	100.0(1003)	100.0(29,233)
설립유형		
국공립	6.7(67)	5.6(1,643)
법인	7.0(70)	5.0(1,475)
부모협동	0.1(1)	0.2(59)
개인민간	43.1(432)	47.6(13,930)
직장	1.2(12)	1.0(298)
가정	42.0(421)	40.5(11,828)
소재지역		
대도시	38.3(384)	41.5(12,122)
중소도시	54.1(543)	45.3(13,255)
읍면지역	7.6(76)	13.2(3,856)
시설규모		
20인 이하	46.5(466)	41.4(12,115)
21인 ~ 39인	22.5(226)	26.6(7,789)
40인 ~ 65인	14.7(147)	12.0(3,507)
66인 이상	16.4(164)	19.9(5,822)

주: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합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있음

〈표 I-3-1〉에 나타난 것처럼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시설이 67개소(6.7%), 법인시설이 70개소(7.0%), 부모협동시설이 1개소(0.1%), 개인민간시설이 432개소(43.1%), 직장시설이 12개소(1.2%), 가정시설이 421개소(42.0%)이다. 소재지역으로 보면, 대도시 384개소(38.3%), 중소도시 543개소(54.1%), 읍면지역 76개소(7.6%)이다. 시설규모로 보면 20인 이하 시설이 466개소(46.5%), 21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이 226개소(22.5%), 40인 이상 65인 이하 시설이 147개소(14.7%), 66인 이상 시설이 164(16.4%)개소이다. 이를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비율과 비교해 보면, 설립유형으로는 개인민간시설, 소재지역으로는 읍면지역, 시설규모로는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보육시설에서의 응답률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대상 시설들의 보육 영유아 수는 〈표 I-3-2〉와 같다.

〈표 1-3-2〉 보육 영유아 현원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현원	연령별 평균현원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만 0세	471	3.5(1,285)	2.7	4.7(46,351)
만 1세	784	10.0(3,685)	4.7	10.4(102,473)
만 2세	947	21.8(8,028)	8.5	20.3(201,111)
만 3세	756	24.6(9,052)	12.0	22.4(221,529)
만 4세	582	21.4(7,891)	13.6	22.2(219,974)
만 5세	490	18.8(6,924)	14.1	20.0(198,631)
합계	1,003	100.0(36,865)	36.8	100.0(990,069)

주: 만6세 이상(50,292명) 제외. 시설수의 합계는 한 시설이 여러 연령을 보육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시설수를 더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시설수임

〈표 1-3-2〉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대상 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모두 36,865명이며, 만 3세 유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만 2세, 만 4세, 만 5세, 만 1세, 만 0세 순이었다. 보육시설당 평균 36.8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보육시설 평균 현원수인 35.6명보다 조금 많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이 작성하고 영유아보육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보육시설의 일반현황과 특별활동 실시 현황에 관한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1-3-3〉과 같다.

〈표 1-3-3〉 설문지 구성

구분	질문 내용
일반현황	보육시설명 / 주소 / 연락처
	시설유형
	소재지역
	영유아 현원
특별활동 실시 현황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유무 / 특별활동 실시 종류 수 / 선택여부

특별활동 실시 내용 / 대상 / 참가수
특별활동 참가비용 / 수납방법 / 수납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부모대표)와의 심의(협의) 여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 담당자 / 장소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 / 도움이 되는 정도
외부 학원 등에서 하는 특별활동 소개 여부 / 소개 이유

다) 연구절차

설문조사는 전문 전화조사팀을 두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사전에 조사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조사를 하는 동안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조사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 등을 협의하며 진행하였다. 전화조사는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전국 보육시설에서 10% 유층 무선 표집한 2,973개의 시설 명단을 가지고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1,003개 보육시설의 설문조사 응답 내용 모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라)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시설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에서 시설유형, 소재지역, 시설 규모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2) 사례조사

가) 연구대상

본 사례조사는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루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진 직장보육시설 두 곳과 민간보육시설 한 곳과 부모협동보육시설 한 곳과 각 시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연구도구

본 사례조사를 위한 교사 인터뷰 문항은 사례조사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교사 인터뷰 질문 문항은 <표 I-3-4>와 같다.

<표 I-3-4> 인터뷰 질문 문항

구분	문항	
특별활동 운영 실태	1) 귀 기관에서는 특별활동을 몇 가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다면 / 한 적이 있다면 ① 왜 하고 있습니까? ② 특별활동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③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④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대상연령 / 의무 혹은 선택) ⑤ 어떤 형태(어디서 / 대집단, 소집단, 개별 / 시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⑥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을 받는다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나 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쳤습니까? ⑦ 특별활동이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⑧ 특별활동을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안 하고 있다면 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안 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반응, 요구 / 교사들의 반응, 요구) ③ 특별활동 없이 일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바람직한 운영사례 에 대한 의견	2) 바람직한 운영사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연구절차

7월 30일~31일에 4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하루일과에 대한 문서를 수집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라)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보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연간계획안의 예, 일과운영의 예,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의 견해의 범주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II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II.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특별활동의 근거

보육시설에서는 관례적으로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등 보육 관련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의 보육비용 관련 규정에서 특별활동에 대해 언급된 곳을 찾을 수 있다. 보육 규정 관련 문서 중 보육비용에 대한 규정 부분을 살펴보면 <표 II-1-1> 과 같다.

<표 II-1-1> 보육비용 관련 규정

영유아 보육법	제 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제 12조 내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7년 보육 사업 안내	<p>1. 보육료 등 결정</p> <p>1) 시·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p> <p>2)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3) 시설장 :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2007년 서울시 보육 사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특별)활동’의 정의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동의서 청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경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한다.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서 보육료 및 기타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에서 ‘특기(특별)활동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으며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동의서 청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현장 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경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시행계획」에서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하여 금지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유치원의 특별활동 금지 내용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아교육 시행계획> - 2005년도까지 나왔고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지님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중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내용(2005년)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성교육 및 창의성 개발 등 전인교육 정착 - 국가고시 유치원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교육과정운영지침 준수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
- 교육부 개발·보급 유아교육자료 적극 활용
 -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감독 철저
 -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
 - 종일반 프로그램: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언어, 수·과학, 미술, 음악 등) 내용을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운영
-

2.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활동이라는 용어가 공식 문서상에 나타나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54년 문교부령 제 35호로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특별활동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후부터이다(박경묵, 박한숙, 정태근, 2004). 이 기준령 제 6조에서는 특별활동을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활동으로, 제 7차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을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1997). 일반적으로 특별활동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 이외의 학교교육활동, 즉 학생의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클럽 활동, 학교행사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된다(이경화, 함수근, 1998; 허명순, 2007, 재인용).

초중등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개 영역이며(교육부, 1997),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통해 교과활동에서 얻을 수 없는 기능과 태도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국립교육평가원, 1997).

한편 교육과정이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초중등학교 특별활동의 정의와 성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은 특별활동, 특기교육, 조기특기교육, 시간연장제 프로그램, 방과 후 특별활동 등 여러 유사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김기연, 2005),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표 II-2-1>은 연구자별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정의이다.

〈표 II-2-1〉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자	정의
이선정(2003)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교수교육, 개인 소집단 과외교육, 특기교육, 방문(강사)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시간, 방과 후 활동 시간, 그리고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특기를 신장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윤기영, 권미영(2004)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소질계발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반적인 유치원의 일상생활을 보다 심화 확장하는 활동으로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김법정(2005)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 1~2회, 혹은 3~4회씩 정기적으로 외래강사나 특별채용교사를 통하여 영어,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허명순(2007)	유아의 전인발달과 소질 계발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상생활을 심화 확장하는 활동으로 유아의 요구와 흥미, 개성, 그리고 자율성에 무게를 둔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 중심의 체험활동

이기숙 등(2001)은 유치원의 특별활동은 유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신장하는 교육적 활동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전수가 목적인 교사중심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유아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는 선행학습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조기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의 학업 성취를 위한 선행학습을 강조하는 교육을 의미하였다. 현재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역시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유아교육기관 특별활동을 일종의 조기교육으로 간주한다(이정화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을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 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며,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의 별도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한 협의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이루어진 특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과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1) 부모의 인식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허명순(2007)은 부산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의 현황과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부모의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특별활동의 종류, 교육내용, 교육수준, 강사, 자질, 수업료, 자녀의 흥미, 교육 효과별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특별활동에 대한 자녀의 흥미를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의 운영방식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이 보다 세분화되고 교과별로의 심화과정을 편성하여 운영되며 특별활동이 정규교육을 보충하고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으로 특별활동의 무상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특별활동을 통해 자녀의 잠재능력이 계발되고, 장래 전문성을 위한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이 다져지는 것이었으며,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연계되고 학습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사회계층수준이 낮을수록 한글 교육수준에 대해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의 교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창의적 놀이 위주이면서 가급적 전공 교사가 교육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담당교사와 상담을 하고, 교재를 통해 수업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법정(2005)은 서울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유아교육기관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치원 선정 시 특별활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이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며, 학원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 때문이다. 부모들은 특별활동으로 영어, 체육,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규 수업 중 2~3가지 활동이 적

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 특별활동 운영의 목적을 ‘유아들의 재능 및 소질 계발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은 특별활동 운영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증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은 ‘유아 개개인의 발달수준이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아 유아에게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외래강사에 대해 좋은 점은 ‘담당 활동을 전공하였거나 담당 활동에 소정의 훈련을 받아 전문가로서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며, 문제점은 ‘유아 개개인의 발달 상태 및 흥미와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인식하였다. 부모들은 유치원 특별활동이 ‘유치원 정규 교육을 보충 및 확장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의 개선점으로 유아 개개인의 발달,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특별활동의 교육 내용이나 유아들의 성취도나 평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박희원(2000)은 구립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요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특별활동 실시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영어, 미술, 사회체육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사의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부강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특별활동의 유무가 기관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하며, 기관의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대해서 유아 개개인의 발달,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수업, 특별활동의 교육 내용이나 유아들의 성취도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정규교육을 보충하고 확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연계되고 학습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2) 교사의 인식

특별활동 실시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이 유아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이명조 외, 2003).

한편 교사는 특별활동에서 담당교사의 자질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아가 느끼는 과중한 스트레스, 수업준비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관련 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유치원 교육활동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이기숙 외, 2002)

3) 기관장의 인식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은 유아가 특별활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되지 않으며, 특별활동을 받는 유아가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이 유아의 인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이정화, 정선아, 2004). 실제로 원장들은 특별활동을 한 유아가 학습요령을 더 잘 습득하고 선행학습으로 인해 자신감을 받는 부분은 많으나, 학습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며 과도한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나친 주변의식이나 자기과시 경향이 보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다(우남희 외, 2005).

유아교육기관 기관장들에게 특별활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이정화, 정선화, 2004). 첫째,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진정한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다양한 맛보기에 그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셋째, 특별활동은 그 효과를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반면 유아교육기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혹은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해 갈등한다.

4) 유아의 인식

교사나 부모의 시선에서 보면 유아들은 대부분 특별활동을 흥미 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승 외, 2001; 오효선, 2001; 이선정, 2003). 한편 특별활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직접 조사한 연구(이명조 외, 2003)는 유아에게 특별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워야만 하는 교과활동이다. 둘째,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활동이다. 셋째,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넷째, 정규 일과 수업과 다르다.

이명조 등(2003)에 따르면 유아들은 특별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정규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내용을 접함으로써 흥미를 느끼며, 특별활동 교사의 유머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외적 보상을 사용하는 교수방식, 무엇인가를 좀 더 잘하게 된 것 등이 유아들이 특별활동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반면에 개개인의 요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특별활동 강사가 강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유아들은 특별활동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특별활동이 재미없고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공부로 생각하고 있고, 재미없는 특별활동 시간을 참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 특별활동 운영 현황

1) 특별활동 내용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이미화 외, 2005)에 의하면, 특별활동은 보육시설의 69.7%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유료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외국어(24.5%), 미술(10.3%), 과학(9.4%), 체육(8.2%), 교구이용(7.6%)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유료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종류로는 1개를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1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개(14.8%), 3개(9.6%) 순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1~3개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43.2%). 특별활동과 별도로 조사한 학습지는 보육시설은 44.9%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현원의 27.2%가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등(2002)의 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74.6%가 1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가지 이상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20.2%로 가장 많고, 3가지를 실시하는 경우는 18.2%였고, 6개 이상을 하는 경우도 5.7%가 있었다. 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하는 특별활동은 영어교육으로 과반수이상인 58.2%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그리기(38.2%), 피아노(25.0%), 유아체조(20.6%), 만들기(19.9%), 국악(13.7%), 컴퓨터(11.7%), 태권도(10.2%), 바이올린(5.6%) 등의 순이다.

허명순(2007)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만 5세 유아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이 영어, 한자, 한글, 수학 등 교과중심의 지적 교육 위주이며, 예체능 분야에서는 체육, 수영, 미술 순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기숙 등(2002)의 조사에서는 전국 유치원 1116곳 중 약 90%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3~4가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였다. 특별활동의 내용으로는 영어(64.3%), 미술(50.9%), 체육(48.1%), 악기연주(39.2%), 종이접기(22.5%), 컴퓨터(18.7%), 과학(17.6%), 학습지(15.9%), 동화구연(12.7%), 수영(9.1%)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법정(2005)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중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종류 중 영어를 가장 많이 실시(87.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미술, 생활체육, 국악, 학습지, 컴퓨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기영 등(2004)은 교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전통문화 및 체험활동, 자연체험, 요리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책 만들기 활동, 토의활동, 종이 접기, 바느질 놀이 순이며, 교사들이 운영하고 싶은 유치원 특별활동은 자연체험, 각종 놀이 활동, 노작 활동, 미술, 음악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많은 보육 시설과 유치원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영어 등의 외국어였고, 그 다음은 미술, 체육, 음악 등 예체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별활동 방법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이미화 외, 2005)에 의하면 보육시설 중 53.4%가 특별활동 비용을 받고 실시하고 있었으며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6.3%였다.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시간대는 오후 보육시간 중(35.8%), 오전 보육시간 중(32.8%), 오전·오후 보육시간 중(30.3%)이었으며 유료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유아 1인당 평균 참가비용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25,330원으로 가장 높고,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10,42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수납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육시설은 15.0%에 불과했다. 학습지를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월 1인당 학습지 수납액은 평균 7,630원으로 나타났다.

이기숙 등(2002)은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시 형태는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별활동의 담당자는 외부 강사가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구성은 대체적으로 대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별활동 비용은 정규수업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방과 후에 하는 활동은 부모가 부담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와는 별도로 특별활동비를 부과한다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영 등(2004)은 특별활동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으로, 첫째, 교사 부모 지역사회의 협조체제로 이루어지는 것, 둘째, 아동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교육과정에 부합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 넷째, 소집단으로 운영하는 것, 다섯째, 과정중심으로 하는 것, 여섯째, 교사들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 것, 일곱째,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3)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명 등(2006)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으로 특별활동의 발달 적합성,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사회·문화 적합성을 논하였다. 그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이 전체 일과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교사 주도의 학습방식으로 진행되고, 특별활동 전담교사가 담임교사와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활동이 통합적인 교육·보육 과정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화 등(2005)은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읽기·쓰기가 곧 초등학교 준비라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육 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의 조화로운 전인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보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통합적 보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간보육 시설은 원아모집 때문에 학부모의 요구와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보육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기교육이나 특기교육에 치중하는 교육방식들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보육종사자들도 스스로 바람직한 보육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기숙 등(2002)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 중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부모들이 원하고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교사들이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이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유아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 다음으로 유아들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 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유치원 교육활동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순이었다.

윤기영 등(2004)은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으로 학부모의 인식, 교수자료나 프로그램 부족, 행·재정적 지원 부족, 교사의 전문성 결여, 시설설비 미비,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특별활동의 명확한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 둘째, 부모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셋째, 교사 연수, 넷째, 재정지원, 다섯째,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정화 외(2003)는 유치원 특별활동 과열 양상의 문제로 첫째, 유아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규 일과를 침해한

다는 것, 셋째, 통합교육을 저해한다는 것, 넷째, 유아교사들의 효능감을 저해시킨다는 것, 다섯째, ‘특별활동 전담교사’ = ‘특별활동 전문가’라는 유치원 원장, 교사,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유치원의 외래강사 활용을 부추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활동은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특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적합하지 않으며, 많은 특별활동들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전문가보다는 특정 영역의 전담 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일과와 독립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통합적인 보육·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부모교육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

Ⅲ.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

1. 표준보육과정*

가. 표준보육과정의 제정 취지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완전한 어른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표준보육과정의 마련은 과거 어린이집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육과정 없이 지역이나 기관별로 각각 다양한 자료집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활동을 제공하였던 것을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가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 (2)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 (4)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 (5)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6)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여성가족부(2007).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영유아기는 생애발달적 측면에서 그 이후의 삶에 누적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만 6세미만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 내용은 중요하며 특히 각 발달시기에 적합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의 발달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령별로 영유아가 경험하는 지식과 기술은 계열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발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보육과정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정서 등의 전인발달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돌보며 어떤 경험과 학습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보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기본생활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신체운동영역은 영유아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운동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사회관계영역은 영유아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의사소통영역은 영유아가 타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즐기며,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힘으로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 (5) 자연탐구영역은 영유아가 자신의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과학적 기초능력을 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6) 예술경험영역은 주변의 사물이나 소리·자연·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동작·극·미술로 표현할 뿐 아니라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기므로써 영유아의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도록 한다.

라.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

각 영역의 목표와 내용은 만 2세 미만 영아, 만 2세 영아, 만3~5세 유아 세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연령집단별 보육내용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개인차 등 각각의 수준을 고려하여 1~3수준까지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사를 위한 영역별, 연령별 지침을 별도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지침에는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식, 바람직한 환경구성, 지도방법 및 유의점 등을 제시, 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교사와 영유아간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표준보육과정 운영은 보육계획 수립, 보육과정 편성, 보육과정 실시, 보육과정 운영 평가,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1) 보육계획 수립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연간, 월간, 주간별로 보육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보육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2) 보육과정 편성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해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보육과정 실시

보육시설은 보육목표와 보육내용에 적합한 보육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있게 제공해야 한다.

4) 보육과정 운영평가

보육시설은 보육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효율적인 보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및 부모와의 면담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

하도록 한다.

5)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바. 표준보육과정 현장 적용 시 고려할 점

보육교사는 표준보육과정을 숙지하여 영유아들에게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상의 보육목적(1조) 및 보육이념(3조)과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보육과정의 목적 및 추구하는 인간상,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보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시기별로 구체적인 보육계획을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수립하는 보육계획에는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은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지, 주제에 어떤 개념과 내용들을 포함시키는지,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영유아들에게 제시하고 보육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한편 보육계획과 운영은 반드시 영유아의 발달에 알맞아야 하며, 발달의 전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6개 보육영역의 보육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고, 영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각 영유아들의 흥미, 요구 등을 보육목표에 포함한다. 특히 이전에 했던 경험이나 지식,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보육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대로 수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변화를 주어 실시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수정, 보완, 첨가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육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계획을 각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인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 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보육프로그램*

가. 교사의 역할

보육시설의 영유아들은 장시간 기관에 머무른다. 이에 따라 식사, 수면, 배변 등의 생리적인 측면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교사와 영유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영유아들에게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최상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영아의 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계획된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 교육자로서 영유아들의 능력을 믿고 비계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수시로 자신의 교수 행동을 평가해야 하며 영유아들에 대한 평가 또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교사는 부모 및 동료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 교사의 역할

영아 교사는 ‘돌보는 사람’이다. 영아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적 돌봄 속에서 탐색과 놀이를 하며 나날이 발달해 나간다. 교육은 바람직한 돌봄과 분리할 수 없으며 바람직한 돌봄 속에서만 교육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아들과 보내는 일과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아들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

영아를 위한 일과의 모든 순간들은 교육적 가치가 크다. 영아들의 경험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제 중심의 통합적인 활동은 놀이와 일상적 양육 속에서 드러난다. 유능한 교사라면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고 영아들의 관심사나 행동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2007).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가) 계획과 준비

교사는 모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경 및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환경은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 주제에 맞추어 적합한 교구와 교재를 준비하여 배치하고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욕구 충족과 신뢰감 형성

교사는 영아의 수유량과 식사량, 선호하는 음식, 기저귀 가는 횟수 및 간격, 수면 패턴과 잠자는 시간 등 일상적인 습관에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다) 놀이 지원

교사는 놀이에 관심보이기,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기, 자료 및 아이디어 제공하기, 놀이에 참여하기, 흥미 유도하기 등을 통해서 영아들의 놀이를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개입은 영아의 놀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라) 관찰 및 평가

교사는 하루 일과를 통해 영아들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영아에 대한 관찰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기록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는 영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 계획의 수행을 점검하여 보육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유아교사의 역할

교사는 개별 유아들의 가정환경, 행동 특성, 현재의 발달 수준, 흥미, 사전경험, 기질 등을 미리 알고 이에 기초하여 유아들과 상호작용 수준이나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육계획안을 기초로 개별 유아의 건강이나 심리 상태, 그날의 날씨, 특별 행사, 교실 분위기 등에 따라서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가 보육시설에 등원에서 하원하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즉 교육적 활동과 일상적 양육, 조용하며 정적인 활동과 동적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활동, 교사주도 활동과 아동-교사, 아동-아동, 아동-교구상호작용이 강조된 활동,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휴식, 그리고 실내 활동과 실외활동 등이 골고루 포함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시간과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경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활동, 다른 친구들이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 시간 등 음악이라는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한다.

교사는 전체 보육실의 활동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유아가 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떤 수준으로 활동을 하는지,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나타내는지, 지난 시간 보다 더 증진된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또래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 보이는지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한 흥미영역에 오래 머물지 말고 각 흥미 영역을 교루 돌아다니며 미리 관찰한 정보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유아에게 반응을 하고 이들의 경험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계획과 준비

교사는 모든 하루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경 및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환경은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어야 한다. 교사는 각 흥미영역별로 생활 주제에 맞추어 적합한 교구와 교재를 준비하여 배치하고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나) 대·소집단 활동의 운영

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대·소집단 활동을 운영한다. 대소집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에서 요구되는 교수 전략을 잘 알아야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놀이 및 활동지도

교사는 놀이에 관심보이기, 칭찬하거나 격려해주기, 소품 및 아이디어 제공하기, 놀이에 참여하기,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사진 찍어 주기, 공동 협의하기, 질문하기, 흥미유도하기 등을 통해서 유아들의 놀이를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적

절한 개입은 유아의 놀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라) 관찰 및 평가

교사는 하루일과를 통해 유아들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유아의 관찰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유아의 활동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관찰, 기록, 수집,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는 유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 계획의 수행을 점검하여 보육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생활지도

유아들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보육시설에서 배워야 한다. 교사는 하루의 일과를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유아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유아들에게 갈등 관리법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 통합적 하루일과의 예

2007년도에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보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하루일과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0세의 하루 일과

0세를 위한 하루 일과는 영아의 개별적 생리 리듬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0세 영아에게는 수유 및 이유식, 낮잠 및 휴식, 기저귀 갈기 등의 일상적인 양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일상생활이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교육적인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0세는 월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0세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월령별로 나누어 하루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0세의 하루 일과는 <표 III-2-1>, <표 III-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1〉 6~12개월 일과 운영의 예

시간	주요일과		활동 내용
	6~9개월	10~12개월	
07:30 ~09:00	등원 및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헤어져 교사와 반갑게 인사하기 · 영아의 상태 점검하기 (투약 여부, 컨디션, 수유 및 이유식 여부, 배변 여부) · (부모님) 전날 일일보고서 작성하기
09:00 ~09:30	이유식 기저귀 갈기/씻기	오전 간식(이유식) 기저귀 갈기/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닦고 턱받이 하고 간식 먹기 · 음식에 관심을 가지며 즐겁게 이유식 먹어보기 · 세면과 입 닦기, 기저귀 살피기
09:30 ~10:30	오전 실내 자유놀이	오전 실내 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계획에 따른 각 월령에 적절한 신체, 탐색, 사회정서영역 놀이하기 · 교사와 개별적(1:1) 상호작용하기
10:30 ~11:00	오전 수유 및 낮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음악 들으며 편안한 수유시간 갖기 · 영아용 개별 침대에 누워 낮잠 준비하기
11:00 ~12:00	오전 낮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하게 낮잠 자기
12:00 ~13:00	수유 및 이유식 기저귀 갈기 /씻기/이닦기	점심식사 (이유식 →점심식사) 기저귀 갈기 /씻기/이닦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눈 맞추며 수유 또는 이유식 먹기 · 세면과 영아용 손가락 칫솔로 이와 잇몸 닦기 · 기저귀 살피기
13:00 ~14:00	오후 실내 자유놀이	오후 실내 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계획에 따른 각 월령에 적절한 신체·움직임, 의사소통·사회관계, 탐색·표현 놀이하기 · 교사와 개별적(1:1) 상호작용하기
14:00 ~14:30	오후 수유 및 오후 낮잠 산책 및 외기욕	휴식 및 오후 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음악 들으며 휴식 취하기(월령이 낮은 영아 중 낮잠을 원하는 영아는 수용해 주기) · 교사와 눈 맞추며 수유하기
14:30 ~15:30		산책 및 실외 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 타고 산책 다녀오기 · 실외, 옥외 놀이터에서 외기욕하기
15:30 ~16:30	기저귀 갈기 손, 발 닦기 이유식	기저귀 갈기 손, 발 닦기 오후 간식(이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과 발 닦고 기저귀 살피기 · 손 닦고 턱받이 하며 간식 먹기 · 음식에 관심을 가지며 즐겁게 이유식 먹어보기 · 얼굴과 손 닦기
16:30 ~17:30	오후 실내 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계획에 따른 각 월령에 적절한 신체, 탐색, 사회정서영역 놀이하기 · 교사와 개별적(1:1) 상호작용하기
17:30 ~18:30	저녁 수유 및 오후 낮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음악 들으며 편안한 수유시간 갖기 · 영아용 개별 침대에 누워 낮잠 준비하기 ·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하게 낮잠 자기
18:30 ~19:30	세면 및 귀가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에서 일어나 세면 후 로션 바르기, 걸옷입기 · 부모님 오시는대로 귀가

주: 본 일과는 영아의 개별 리듬에 따라 개별 하루 일과로 조정가능 함

〈표 III-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6~12개월의 영아는 먹기, 기저귀 갈기, 씻기, 자기 등의 일상생활이 하루 주요일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놀이활동은 실내 자유놀이를 3시간을 하고, 6~9개월의 영아는 실외에서의 산책 및 외기욕, 9~12개월의 영아는 산책 및 실외 자유놀이를 통해 실외활동을 1시간 정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I-2-2〉 13~24개월 일과 운영의 예

시간	주요일과	활동내용
7:30 ~8:50	등원 및 건강관찰 조용한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인사나누기 · 부모와 인사하며 헤어지기 · 영아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관찰하기 · 개별적으로 조용한 놀이하기
8:50 ~9:00	정리정돈 및 손 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 정리정돈하기 · 깨끗하게 손 씻기
9:00 ~9:30	오전 간식 및 기저귀 갈기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있게 오전 간식 먹기 · 간식 접시 정리하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9:30 ~11:00	오전 실내 자유놀이 및 정리정돈, 기저귀 갈기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준비한 놀이 활동이나 자유롭게 탐색활동하기 ·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접촉, 혼자놀이 등의 활동하기 · 정리정돈 하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11:00 ~12:00	실외 자유놀이 및 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놀이 및 자유롭게 움직이기
12:00 ~12:40	손 씻기, 점심식사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게 손 씻기 · 맛있게 점심식사하기 · 세안 및 양치질하기
12:40 ~13:00	전이활동 및 기저귀 갈기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동화 듣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13:00 ~15:30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음악이나 자장가 들으며 낮잠 자기 · 낮잠 자지 않는 영아는 누워서 동화를 듣거나 조용한 놀이하기
15:30 ~15:40	잠자리 정리 및 오후 간식 준비 화장실 다녀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자리 정리하기 · 깨끗하게 손 씻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15:40 ~16:10	오후 간식 및 정리	· 오후 간식 먹기 · 간식 먹은 후 정리하기
16:10 ~16:30	세안 및 기저귀 갈기 몸단장하기	· 세안 및 로션 바르기, 머리 빗기
16:30 ~17:00	실내 자유놀이 및 교실 청소	·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책을 보기 · 놀잇감을 가지고 자유놀이하기
17:00 ~18:30	실내 자유선택활동 기저귀 갈기 화장실 다녀오기	·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접촉, 혼자놀이 등의 활동하기 · 정리정돈 하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18:30 ~19:30	통합 보육 및 하원	· 조용한 놀이하기 · 부모와 영아의 상태에 대해 대화하고 하원 인사를 나누기

주: 본 일과는 영아의 개별 리듬에 따라 개별 하루 일과로 조정가능 함

〈표 III-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3~24개월의 영아는 일상생활이 하루일과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6~12개월 영아보다는 스스로 해보는 것에 중점을 두며, 실내 자유 놀이 활동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외 자유놀이 및 산책시간은 똑같이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1세의 하루 일과

1세를 위한 하루 일과는 하루 일과를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되 영아의 개별적 생리 리듬을 충분히 반영한다. 하루 일과의 규칙성은 영아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하므로 영아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요구를 조절하며,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하루 일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영아의 개별적 생리 리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1세 영아에게도 일상적인 양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일상생활이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교육적인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1세 영아의 하루 일과는 〈표 III-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세 영아의 하루 일과는 먹기, 화장실 가기, 자기 등의 일상생활과 실내외 자유놀이를 구성되어 있다.

〈표 III-2-3〉 1세 일과 운영의 예

시간	주요 일과	활동 내용
7:30 ~8:30	등원 및 맞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미소로 영아를 맞이하고 영아의 상태를 살핀다. · 부모와 대화하고, 영아의 소지품을 확인·정리한다. · 영아가 부모와 인사하며 헤어지도록 한다.
8:30 ~9:20	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등원하는 대로 놀이와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한다.
9:20 ~9:30	정돈 및 화장실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을 제자리에 놓는다. · 영아의 기저귀를 확인한 후 갈아 주고,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 영아는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9:30 ~9:50	오전 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손을 씻도록 도와준다. · 간식을 준비해 주고 함께 먹는다.
9:50 ~10:40	실내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발달 상황 및 요구를 고려하여 놀이한다. · 영아들의 놀잇감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40 ~10:50	정돈 및 화장실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을 제자리에 놓는다. · 영아의 기저귀를 확인한 후 갈아 주고,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 영아는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10:50 ~11:30	실외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하도록 한다. · 실외의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을 탐색하도록 격려한다.
11:30 ~12:30	점심먹기와 양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손을 씻도록 도와준다. ·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는다.
12:30 ~15:30	낮잠 및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이불과 베개를 준비한다. · 영아의 기저귀를 확인한 후 갈아 주고, 화장실 사용 가능한 영아는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 자장가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을 자도록 한다. · 늦게 잠들거나 일찍 깨는 영아는 휴식을 갖거나 조용한 놀이를 하게 한다.
15:30 ~15:50	정돈 및 화장실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기저귀를 확인한 후 갈아 주고,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 영아는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 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정리한다.
15:50 ~16:10	오후 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손을 씻도록 도와준다. · 간식을 준비해 주고 함께 먹는다.
16:10 ~17:30	오후 실내외 자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발달 상황 및 요구를 고려하여 놀이한다. · 영아들이 놀잇감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30 ~19:30	귀가 준비와 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전달사항이 있으면 일일 보고서에 기록한다. · 자유롭게 놀이하며 부모님이 오시는 대로 귀가시킨다. · 부모님과 영아의 하루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2세의 하루 일과

2세를 위한 하루 일과는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되 당일 영아들이 보이는 흥미나 요구,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2세 영아를 위한 하루 일과도 일관성 속에 영아의 개별적인 리듬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2세 영아의 하루 일과는 <표 III-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세 영아의 하루 일과는 1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먹기, 화장실 가기, 자기 등의 일상생활과 실내외 자유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활동과 활동을 연결하는 전이활동을 계획한 것이 1세 하루일과와의 차이이다.

<표 III-2-4> 2세 일과 운영의 예

시 간	주요 일과	활동 내용
07:30 ~09:00	등원 및 실내 활동	· 밝은 미소로 영아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 영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듣는다. · 영아와 놀이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한다.
09:00 ~09:20	화장실 가기 및 손 씻기	·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09:20 ~09:50	오전 간식	· 포크나 수저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간식준비와 뒤처리를 영아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 제자리에서 먹도록 한다.
09:50 ~10:40	오전 실내 자유놀이활동	· 교사가 준비한 놀이활동을 하거나 영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하도록 한다. · 영아는 언어, 창의적 표현, 쌓기, 역할, 탐색·조작놀이 등을 할 수 있다.
10:40 ~10:50	정리정돈	· 교사가 정리정돈을 하면서 영아도 스스로 제자리에 놓아보도록 유도한다.
10:50 ~11:00	전이 활동	·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는 전이 시간에 손유희 등의 짧은 전이활동을 진행하므로써 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계획한다.
11:00 ~11:40	실외 자유놀이활동	· 교사가 준비한 실외 놀이활동이나 대근육 활동, 물 놀이, 모래놀이 등을 자유롭게 한다. 우천시에는 강당 및 실내놀이로 대체한다.
11:40 ~12:30	점심준비 및 점심식사	· 식사 전 손씻기 지도를 한다. · 점심식사 준비와 뒤처리에 영아를 참여시키며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12:30 ~12:50	이 닦기 및 화장실 가기	· 점심식사 후 스스로 이닦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낮잠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12:50 ~15:00	낮잠준비 및 낮잠	· 낮잠준비를 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자장가를 들려준다.
15:00 ~15:30	낮잠 깨기 및 정리정돈 화장실 가기	· 낮잠에서 깨어나면 잠자리를 정리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15:30 ~16:00	손 씻기 및 오후간식	·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 포크나 수저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16:00 ~18:00	오후 실내외 자유놀이활동	· 오후 자유놀이활동은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오전에 계획된 활동을 반복하거나 오전 놀이의 연계활동을 한다. 보육실외 다른 공간(실외 놀이터, 유희실, 옥상 등)으로 이동하여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
18:00 ~19:30	조용한 놀이 귀가 준비 및 순차 귀가	· 귀가준비(소지품 챙기기, 씻기, 옷 입기 등)를 하고 일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영아와 개별적으로 놀이한다. · 부모와 영아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귀가 인사를 나눈다.

4) 3세의 하루 일과

3세를 위한 하루 일과는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되 당일 유아들이 보이는 흥미나 요구,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3세를 위한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에도 간식, 배변, 휴식 등 유아의 신체적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3세를 위한 하루 일과 운영의 예는 <표 III-2-5> 와 같다. <표 III-2-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세 유아의 하루 일과는 2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먹기, 화장실 가기, 자기 등의 일상생활과 실내외 자유놀이를 구성되어 있으며, 대소집단 활동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표 III-2-5> 3세 일과 운영의 예

시 간	주요 일과
7:30 ~9:30	등원 및 실내 자유 선택 활동(통합보육)
9:30 ~10:30	손 씻기, 오전 간식 먹기
10:00 ~11:20	오전 실내 자유 선택 활동
11:20 ~11:30	정리 정돈 및 화장실 가기

11:30 ~12:00	전이 활동 및 대·소집단 활동
12:00 ~12:30	실외 활동
12:30 ~12:40	정리 정돈 및 손 씻기
12:40 ~13:10	점심
13:10 ~13:30	이 닦기 및 화장실 가기
13:30 ~15:30	낮잠 준비 및 낮잠
15:00 ~15:30	낮잠 깨기
15:30 ~17:00	오후 간식 및 자유 선택 활동
17:00 ~17:50	실외 활동
17:50 ~19:30	귀가(통합 보육)

5) 4세의 하루 일과

4세를 위한 하루 일과는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되 당일 유아들이 보이는 흥미나 요구,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하루 일과는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교사 주도 활동과 유아 주도 활동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4세를 위한 하루일과 운영의 예는 <표 III-2-6> 과 같다. <표 III-2-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세 유아의 하루 일과는 3세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소집단 활동의 시간이 좀 더 길고, 자유선택활동이 좀 더 복잡하고 구조화되어 있다.

<표 III-2-6> 4세 일과 운영의 예

시간	주요 일과	활동 내용
7:30 ~ 9:00	등원 및 통합보육	· 선생님과 친구에게 인사하기 · 유아의 기분이나 건강상태 점검하기 · 투약의뢰서 유무확인
9:00 ~9:40	오전 간식 및 하루일과 계획하기	<오전간식> · 손을 씻은 후 간식영역에 준비된 간식을 가지고 자리에 앉기 · 간식 먹은 후 자리를 정리하고 놀이하기

		<p><인사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래 부르기 · 날짜와 날씨 알아보기 · 하루 일과 계획하기
9:40 ~10:50	실내 자유선택활동	<p><역할놀이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에 친구 집에 인사하러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p><언어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 인사카드 기억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에는 인사를 어떻게 할까? - 그림 카드를 보며 어떤 인사법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 설날 인사 카드의 그림을 보고 기억한 후 같은 그림을 찾아 볼 수 있겠니? <p><수· 조작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입는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을 입어 본적이 있니? - 한복을 입는 순서를 기억할 수 있겠니? - 순서에 맞게 한복을 입혀보자.
10:50 ~11:00	정리정돈 /자유선택 활동 평가	<p><정리정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소리 듣고 자기가 놀던 자리 정리하기 · 놀잇감 정리 후 화장실 다녀오기 <p><전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나라 인사말 게임하기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선택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11:00 ~11:50	대· 소집단활동	<p><동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놀이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놀이를 해 본적이 있니? - 오늘은 옷놀이에 관한 동화를 들어볼까? - 잘 들었니? 또 읽어 보고 싶은 친구는 언어영역에 비치해 놓을 테니 읽어 보도록 하자. <p><수· 과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가 되어 몇 살이 되었니? - 그럼 새해는 몇 년도 일까? - 새해의 날짜를 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오늘은 함께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볼까? - 다 만든 달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11:50 ~12:50	점심식사 /이 닦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심식사 전 손 씻기 ·골고루 음식을 먹고 스스로 자리 정리하기 ·이 닦은 후 휴식 및 조용한 놀이하기
12:50 ~13:10	실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책하기> ·보육시설 주변 산책하기
13:10 ~13:30	손 씻기 및 낮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씻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낮잠 준비하기
13:30 ~15:00	낮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매트 위에서 동화책 읽기 ·교사와 동화책을 읽은 후 개별적으로 낮잠 자기 <동화> ·열두 띠 이야기
15:00 ~16:30	오후간식/ 실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고난 이부자리 정리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간식 먹은 후 조용한 놀이하기 <실외 놀이> ·팽이 돌리기
16:30 ~17:30	오후 자유선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과학> ·우리나라의 설날과 중국의 춘절(벤 다이어그램) - 우리나라의 설날과 중국의 춘절을 비교해보자. - 같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17:30 ~19:30	조용한 놀이 및 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 평가 및 인사나누기> ·오늘 즐거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안녕’노래 부르며 교사와 인사나누기 ·집에 갈 준비를 마친 후 조용한 놀이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귀가하기

6) 5세의 하루 일과

5세를 위한 하루 일과는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되 당일 유아들이 보이는 흥미나 요구,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하루 일과 중에 교사와 개별 유아 간 상호 작용, 교사와 대·소집단 유아 간 상호 작용, 유아와 유아 간 상호 작용, 유아와 교구 간 상호 작용의 기회가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세를 위한 하루일과 운영의 예는 <표 III-2-7> 과 같다. <표 III-2-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세 유아의 하루 일과는 4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III-2-7〉 5세 일과 운영의 예

시간	주요 일과	주요 활동 내용	
7:30 ~9:00	등원 및 맞이하기	· 유아 맞이하기, 부모와 간단한 대화 나누기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 듣기	
09:00 ~10:30	실내 자유 선택 활동	쌓기 놀이	· 거북선과 학익진 구성하기
		역할놀이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옷 발표회
		미술	· 금속활자 만들기
		언어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사전 만들기
		수·조작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짝 맞추기
		과학	· 지폐 속의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찾기
		음률	· 세계무대에 선 우리나라의 음악가: 조수미가 들려주는 우리 가곡
10:30 ~10:45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 내가 닦고 싶은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소개하기	
10:45 ~11:10	이야기 나누기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1:10 ~11:30	간식 및 휴식	· 간식 및 휴식	
11:30 ~12:00	신체표현	<몸으로 만든 한글> · 한글 자음, 모음, 단어 등을 몸으로 만들어 보기	
12:00 ~13:30	점심 및 이 닦기	· 손 씻기 · 점심 먹기 · 이 닦기	
13:30 ~14:30	휴식 및 낮잠	· 날씨, 계절, 어린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휴식 또는 낮잠 자기	
14:30 ~16:30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오후 간식	· 오전 활동을 연계하거나 확장하는 놀이하기 · 간식 먹기	
16:30 ~16:50	정리정돈 및 화장실 가기	· 정리 정돈하고 화장실 다녀오기	
16:50 ~18:0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 오전 활동의 심화 활동, 특별히 계획된 프로젝트 하기 · 하루 일과 평가하기	
18:00 이후	통합 보육 및 귀가	· 통합 보육 공간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이 오시는 대로 귀가하기	

3. 바람직한 하루일과 운영사례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루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 4개소의 하루일과를 조사하고 각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면담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직장보육시설

1) A 어린이집

가) 일반적인 현황

A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총 240명의 영유아를 6개 반에서 보육하고 있다. 교직원은 시설장 1명, 보육교사 25명, 야간보육교사 1명, 음률교사 1명, 체육교사 1명, 독서지도교사 1명, 부교사 2명, 양호교사 1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취사원 3명, 취사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 성인의 비율은 약 1 : 6.2 명이다.

나)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방향

특별활동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오후에 프로젝트와 연관된 소집단 활동을 한다. A 어린이집의 영아(만 0~2세)·유아(만 3~5세) 보육프로그램의 방향은 <표 III-3-1>, <표 III-3-2> 와 같다.

<표 III-3-1> A 어린이집 영아 보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전략

	목표	중점내용	추진전략
사회 관계 및 예술 경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보육교사와 안정애착 형성 -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 편안하고 즐거운 정서상태 유지 - 다양한 음악 듣고 반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애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애착에 대한 개념, 중요성 및 애착 요소인식을 위한 교육 강화 - 영아의 개별적인 일과 리듬을 수용하고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의 상호작용 강화

신체 운동 및 기본 생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발달 수준에 따라 신체 발달 과업 이행 -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신체에 대한 자신감 형성 - 대소근육의 원활한 사용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 활동 - 신체부위 탐색 활동 - 안전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발달 과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반복해서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 - 실내외 신체 활동 영역 배치 - 보육교사의 안전 및 위생 지침 숙지 및 실행
자연 탐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으로 탐색하려는 영유아 - 오감각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사물의 속성에 대한 물리적 지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감각 활동 - 물리적 지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색의 기회 극대화 - 보육교사의 영아 탐색에 대한 폭넓은 수용성 증진 - 감각 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 전개
의사 소통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언어 확대 - 쿠잉, 웅알이, 한 단어 등의 표현 언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 그림 책 보기 - 일과 언어로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가 영아의 쿠잉 및 웅알이 듣고 모방하기 - 영아에게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해 주기

〈표 III-3-2〉 A 어린이집 유아 보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전략

	목표	중점내용	추진전략
사회 관계 및 예술 경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사회적인 유아 - 자신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에 관심을 갖는 유아 - 생각과 느낌을 음악, 동작, 극, 미술로 표현하는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능감 증진 활동 - 텃밭 활동 - 환경 교육 - 지역사회 교류 활동 -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능감 증진을 위한 교수방법 숙지 및 실행 - 텃밭 활동 계획 - 지역사회 자연 및 기관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다양한 극, 음률, 조형 활동 계획
신체 운동 및 기본 생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협응 능력 발달 - 대소근육 능력 발달 -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활동 - 조작 활동 - 기본생활 습관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을 연간으로 계획 - 주제별 조작영역
자연 탐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유아 - 정보조직 능력이 있는 유아 -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경험을 나누고 질문목록을 작성 - 가설을 설정하고 수정해가는 과정 중시

<p>의사 소통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을 수 있는 태도 형성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아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문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활동 - 균형 잡힌 문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영역을 듣기, 발하기, 읽기, 쓰기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활동을 균형 있게 제시 - 오후시간에 소그룹으로 균형 잡힌 문제활동을 진행하여 문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 증진
-------------------------	---	--	---

다) 일과 운영의 예

A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다음의 <표 III-3-3> 과 같다. 여기서는 오후에 프로젝트와 연관된 소집단 활동을 실시하는 만 4세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III-3-3> A 어린이집 만 4세 하루일과에 따른 활동 내용

시간	주요일과	활동내용
07:30 ~08:40	등원 및 인사 실내자유선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상태 점검하기(투약여부, 컨디션, 식사나 배변 여부) - 유아·교사간의 개별적 상호작용 - 자유선택 놀이하기
08:40 ~08:50	정리 및 손 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정리하고 스스로 손 씻기
08:50 ~09:10	오전 간식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 친구·교사와 즐겁게 간식 먹기 - 다 먹은 간식 스스로 정리하기
09:10 ~09:3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전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다녀오기 - 아침인사 나누기
09:30 ~09:40	하루일과 소개 및 놀이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일과 소개하기 - 놀이 계획표에 각 흥미영역활동 계획하기
09:40 ~11:20	오전 자유선택놀이 및 소그룹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흥미영역별로 선택하여 놀이하기 - 교실 각 영역 안에서 소그룹 활동 진행
11:20 ~11:40	정리 및 놀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활동 정리하고 놀이계획, 평가표에 평가하기
11:40 ~12:20	실외놀이 및 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놀이나 산책하기 - 물, 모래놀이, 대근육 활동

12:20 ~13:20	손 씻기 및 점심 식사	-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손 씻기 -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준비 하기 - 반찬과 밥을 골고루 먹기 - 바르게 앉아서 먹기
13:20 ~14:00	전이활동 및 낮잠 준비	- 양치질하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 약 투여하기 - 낮잠 자리 준비하기
14:00 ~15:00	낮잠 및 휴식	- 자리에 누워 조용한 음악 들으며 편안하게 잠자거나 휴식하기
15:00 ~15:30	정리 및 조용한 놀이	- 침구 정리하고 화장실 다녀오기 - 언어영역·조작영역에서 조용한 놀이하기
15:30 ~16:00	손 씻기 및 오후 간식	- 스스로 손 씻고, 자리에 앉아 친구·교사와 즐겁게 간식 먹기 - 다 먹은 간식 스스로 정리하기
16:00 ~17:30	소그룹 특별활동 및 균형잡힌 문해활동	- 소그룹 활동으로 프로젝트와 연관된 소그룹 특별활동 - 동화를 통한 균형잡힌 문해 교육활동(소그룹으로 진행)
17:30 ~19:00	오후 확장활동 및 실외 활동	- 오전에 했던 활동 중 흥미있어 하는 것을 지속하거나 확장하여 자유롭게 놀이하기 - 실외놀이터 놀이감 사용하여 놀이하거나 산책하기 - 물, 모래놀이, 대근육 활동
19:00 ~19:30	통합보육 및 귀가	- 부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자유선택 놀이하기

라) 특별활동에 대한 A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견해

A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에 대하여 학령기에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습득할 내용을 유아기에 장시간을 투자하여 가르치는 것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하며,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다. 만약 정말 특별활동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 내용을 교사가 습득하여 유아가 선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 시간에 하나의 영역으로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유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 활동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A 어린이집의 교사는 유아기가 앞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문제해결력을 갖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전반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관한 부분을 습득해야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이 유

아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성인의 생각이며, 만약 유아가 특별활동에 흥미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각적으로 단시간 내에 마술같이 보여주는 효과일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A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시간과 기관의 일과 시간 사이에 연계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일과가 특기교육 위주로 가게 된다면 정작 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계획한 활동은 시간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교사가 유아와 충분히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 하고, 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의 성취감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A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특별활동 요구에 대하여 단지 학습을 위한 특별활동은 유아들에게 흥미롭지 못하며,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는 적절한 시기에 놀이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부모교육을 통해 꾸준히 이야기 나누면서 부모들을 설득하여, 이제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그 효과를 인식한다고 말한다.

A 어린이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욕심이나 요구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즐거워야 할 시간을 제약 받는 적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어린이집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B 어린이집

가) 일반적인 현황

B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총 196명의 영유아를 11개 학급에서 보육하고 있다. 교직원은 시설장 1명, 영아교사 21명, 유아교사 11명, 시간연장교사 5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관리인 1명, 취사부 1명, 미화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 성인의 비율은 약 1 : 4.5 명이다.

나) 보육 목표

B 어린이집은 유능한 어린이, 스스로 행동하는 어린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어린이, 기쁘게 생활하는 어린이를 보육 이념으로 삼고, 영·유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성취해야 할 보육목표로 다음의 내용들을 선정하였다.

〈표 III-3-4〉 B 어린이집 보육 목표

1. 기본적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을 위한 태도와 지식의 습득 - 기본적인 감각 기능과 신체인식 능력의 함양 - 기초적 운동능력의 증진 - 안전에 대한 태도 습득
2. 건강한 자아 개념과 자율성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애착의 형성 - 긍정적 자아개념의 확립 -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 습득 - 사회적 능력의 증진 - 주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해 - 공동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규범의 실천 - 기본 생활습관 훈련
3. 자신의 개성을 기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을 위한 내적 동기의 증진 - 다양한 욕구의 적절한 표현과 조절 능력 습득 - 창의적 표현과 감상 능력의 향상 - 풍부한 감성과 심미감의 고취
4. 생각과 느낌을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언어의 향상 - 표현 언어 능력의 향상 - 읽기와 쓰기에 대한 기초능력 형성 -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과 태도의 습득 -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언어생활 실현
5. 주변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와 기초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 충족 - 다양한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 - 주변 자원의 탐색 및 활용 능력 증진 - 기초적인 논리·수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심 증진 -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증진

다) 일과 운영의 예

B 어린이집은 만 0세 반에서 만 5세 반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만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만 3세는 오르프 슐레와 체육활동을, 만 4세는 영어와 체육활동을, 만 5세는 영어와 체육활동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만 3세 이상의 하루일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3-5〉 B 어린이집 만 3세 하루일과

시간	주요일과	교육활동
7:30 ~9:00	등원 및 건강관찰 놀이소개 및 놀이계획	- 교사와 인사, 교사의 유아 건강상태 살피기 - 교사의 놀이 소개 - 유아의 놀이 계획
9:00 ~10:40	오전 실내 자유놀이 및 오전 간식	- 미술 활동: 바람개비 만들기 - 쌓기 활동: 블록으로 아기돼지 삼형제 집 만들기 - 극화 활동: 동극-아기돼지 삼형제 - 음률 활동: 리본 춤추기 - 손 씻기, 간식 스스로 먹기
10:40 ~11:20	소·대집단 활동	- 이야기나누기 : 무슨 놀이 했나 생각해 보기 - 테이블 동화- ‘삐약이는 흥내쟁이’
11:20 ~12:00	오전 실외 자유놀이	-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물·모래 활동: 모래 떡가게 놀이 - 신체 활동: 만든 바람개비 들고 달리기
12:00 ~1:00	점심 식사	- 스스로 먹기, 골고루 먹기 - 손 씻기, 뒷정리, 이 닦기
1:00 ~3:30	낮잠 및 휴식 정리 정돈	- 동화 듣기 - 자장가 들으며 잠들기 - 조용히 휴식하기 - 잠자리 정리정돈
3:30 ~5:00	특별활동 및 오후 간식	- 영어, 음악, 체육 등의 특별활동을 요일별로 실시 - 손씻기, 간식먹기
5:00 ~6:00	오후 실외 자유놀이	- 탐구활동: 바깥놀이터에 사는 곤충 관찰하기 - 물·모래 활동: 물 페인트칠하기
6:00 ~7:00	오후 실내 자유놀이	- 수·과학 활동 : 풍선 로켓 만들기 - 언어활동: 테이블 동화 ‘삐약이는 흥내쟁이’ - 음률활동: 노래와 율동 ‘손뼉치기 오케스트라’
7:00 ~7:30	정리 정돈 귀가준비 및 귀가	- 놀잇감 제자리에 분류하기 - 자기 물건 챙기기 - 선생님과 인사하고 귀가
7:30 ~10:00	<야간 통합보육> 저녁 및 휴식 개별 활동	- 저녁 식사 - 휴식하기 - 책보기, 음악 듣기

〈표 III-3-6〉 B 어린이집 만 5세 하루일과

시간	주요일과	교육활동
7:30 ~8:30	등원 및 건강관찰 놀이소개 및 놀이계획	- 교사와 인사, 교사의 유아 건강상태 살피기 - 교사의 놀이 소개 - 유아의 놀이 계획
8:30 ~10:50	오전 실내 자유놀이 및 오전 간식	- 수-과학 활동: 수수께끼 카드 만들기 - 미술 활동: 찰흙으로 곤충 만들기, 동극 소품 (머리띠), 초대장 만들기 - 쌓기 활동: 블록으로 동극 무대 만들기 - 극화 활동: 동극- 흰나비의 눈물 - 음률 활동: 음악 감상 - 컴퓨터 활동: 수세기와 그래프 만들기 - 손 씻기, 간식 스스로 먹기
10:50 ~11:30	소·대집단 활동	- 동시 짓기 : 봄이 된 걸 어떻게 알았니?
11:30 ~12:20	오전 실외 자유놀이	- 탐색 활동 : 개미 찾기, 관찰하기 - 물·모래 활동: 개미집 만들기 - 신체 활동: 훌라후프 놀이
12:20 ~1:40	점심 식사 및 낮잠 준비	- 바른 자세로 먹기 - 조용히 식사하기 - 이 닦기 - 자기 이불 펴기
1:40 ~3:30	낮잠 및 휴식 정리 정돈	- 동화 듣기 - 자장가 들으며 잠들기 - 조용히 휴식하기 - 잠자리 정리정돈
3:30 ~5:30	특별활동 및 오후 간식	- 요일별로 영어, 음악, 체육 등의 특별활동실시 - 손씻기, 간식먹기
5:30 ~6:30	오후 실외 자유놀이 혹은 실내 대근육 활동	- 신체 활동 : 쥐와 고양이 게임 - 탐색 : 심어놓은 토마토 관찰, 개미 관찰
6:30 ~7:30	귀가 준비 및 귀가 저녁식사	- 저녁 식사 - 휴식하기 - 책보기, 음악 듣기
7:30 ~10:00	야간 통합보육	- 개별 혹은 소집단의 정적인 활동

라) 특별활동에 대한 B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견해

B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을 어린이집의 일과 프로그램에 준해서 보육시설의 교육방침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육시설이 직접 선정하였다.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특별활동 운영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었다. 특별활동 선정의 기준으로는 연령별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 중 일과 중에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특별활동 비용은 원비에 포함되어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으며, 유아들은 일괄적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B 어린이집 교사는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유아들의 자유선택놀이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B 어린이집은 오전 자유놀이 활동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특별활동은 오후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이 길어도 30분 정도임을 고려할 때 30분간의 경험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하며, 일과 중에 특별활동의 내용을 녹여서 경험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의 장점으로 일과 중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강사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그러나 외부 강사이다보니 유아와의 상호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특별활동 강사와 담임교사 간에 활동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특별활동 강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활동에 담임교사가 참여하여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준다면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B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운영할 때 가장 주의할 점으로, 특별활동이 주력 프로그램이 되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경험들은 정작 부수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특별활동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에게 이미 너무 강조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실시하더라도 오히려 특별활동이 강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민간 보육시설: C 어린이집 사례

1) 일반적인 현황

C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총 41명의 영아를 7

개 반에서 보육하고 있다. 교직원은 시설장 1명, 전담교사 7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C 어린이집의 영아 대 성인의 비율은 약 1: 3.7 명이다.

2) 보육의 기본방향

만 0세의 경우, 개별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하며,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보육 환경 속에서 개별 발달에 적합한 이유·수유가 진행되도록 한다. 한편 활동 영역을 신체, 탐색, 사회정서, 일상생활영역으로 나누어, 신체 영역에서는 기고, 앉고, 서고, 걷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손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행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소근육의 발달을 돕도록 한다. 탐색영역에서는 까꿍 놀이를 통해서 대상영속성 개념을 획득하도록 돕고, 신체를 사용하여 탐색하는 활동을 격려하고 오감각을 사용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정서 영역에서는 분리불안의 두려움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따뜻하고 온정적인 태도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며,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개별적 특성에 맞는 규칙적인 이유식과 낮잠을 충족시키며 교사와 언어적·신체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실외활동 영역에서는 실외에 나가 신체적 긴장감을 이완하고, 자연현상을 조용히 관찰하고 탐색하도록 하고 있다.

3) 연간계획안의 예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한 C 어린이집 만 0세의 연간 보육계획안은 <표 III-3-7> 과 같다.

<표 III-3-7> C 어린이집 만 0세반 연간 보육계획안

월	주제	활동내용
6개월	낮 가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겨서 흔들 비행기 타기 - 소리 나는 물건 흔들기 - 유모차 타고 산책 나가기 - 이유식 의자에 앉기
7개월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션에 기대어 앉기 - 간식 먹은 후 입 닦기 - 손으로 물건 잡기 - 헝겊티슈 뽑기 - 조용한 음악 들으며 낮잠 자기

8개월	기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바닥으로 밀어내기 - 주머니 속 물건 꺼내기 - 신문지 흔들기 - 움직이는 장난감 쫓아가기 - 공굴리기 - 짹짹, 잼잼 따라하기 - 선생님에게 기어와 안기기
9~10개월	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어서 터널 통과하기 - 통속에 넣고 빼기 - 안녕 인사하기 - 짹짹 노래에 맞춰 손뼉치기 - 엄마·맘마 소리내보기
11~12개월	걸어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함께 책보기 - 거울보며 표정 따라하기 - 식탁에서 이유식 먹기 - 음악에 맞춰 교사 손잡고 춤추기 - 유모차 밀며 걷기 - 지점토에 손바닥 찍기 - 뽕뽕이 담고 쓰기

4) 일과 운영의 예

만 1세의 경우는 오감을 통해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배변놀이, 가족놀이, 음식 놀이 등 영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치경험하기, 옷 입고 벗기 등을 놀이의 일환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한 C 어린이집 만 1세의 하루일과 운영표는 <표 III-3-8> 과 같다.

<표 III-3-8> C 어린이집 만 1세반 하루일과 운영표

시간	주요일과	활동내용
~09:00	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원 및 인사나누기 - 영아의 건강상태 관찰 - 영아를 따뜻하게 맞이하기 - 개별적으로 조용한 놀이하기

09:00 ~09:10	보육실로 이동 및 손 씻기	- 각 반 보육실 이동 - 손 씻기
09:10 ~09:30	오전 간식	- 손 씻기 - 이유식 및 간식 먹기 - 간식접시 정리하기
09:30 ~09:40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 손 씻기
09:40 ~11:00	실내 자유놀이	- 각 영역에 준비된 교재·교구를 갖고 교사와 함께 소집단 활동하기 - 정리정돈 하기
11:00 ~11:40	집단활동	- 노래 부르기, 동화듣기, 조형 활동 등 - 실내외 놀이(유희실, 대근육 활동 등)
11:40 ~11:50	점심준비	- 정리정돈 및 손씻기
11:50 ~12:40	점심	- 점심식사하기 - 세안 및 양치질 하기
12:40 ~13:00	전이활동	- 조용한 놀이나 동화듣기
13:00 ~13:20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 투약 및 낮잠 준비 - 침구 준비 및 옷 벗기
13:20 ~16:00	낮잠	- 적당한 휴식과 낮잠 취하기 - 침구 정리, 기저귀 갈기
16:00 ~16:30	세안 및 오후간식	- 세안하기 - 오후 간식 먹기
16:30 ~17:30	오후 실내·외 자유놀이	- 탐색활동, 산책, 견학 - 대근육·소근육 활동, 실내 물·모래 놀이
17:30 ~18:00	전이활동	- 조용한 놀이 및 동화듣기
18:00 ~18:10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 기저귀 갈기 - 화장실 다녀오기 - 손 씻기
18:10 ~19:30	통합보육 및 귀가	- 소지품 챙기기 - 옷 입히기 - 부모와 영아의 하루 생활 상태 이야기하기

만 2세의 경우는 자기주도성이 강한 2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을 중심으로 보육한다. 어휘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때이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휘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극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스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도록 도와준다. 실내영역활동은 만 2세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언어, 미술, 역할, 쌓기, 신체 조작영역이 한 가지 주제에 의해 통합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한 C 어린이집 만 1세의 하루일과 운영표는 <표 III-3-9> 와 같다.

<표 III-3-9> C 어린이집 만 2세반 하루일과 운영표

시간	주요일과	활동내용
~09:00	등원	- 등원 및 인사나누기 - 영아의 건강상태 관찰 - 영아를 따뜻하게 맞이하기 - 개별적으로 조용한 놀이하기
09:00 ~09:10	보육실로 이동 및 손 씻기	- 각 반 보육실 이동 - 손 씻기
09:10 ~09:30	오전 간식	- 손씻기 - 이유식 및 간식 먹기 - 간식접시 정리하기
09:30 ~10:40	오전 자유선택 활동	- 함께 모이기(아침인사 나누기, 하루일과 소개하기) - 각 영역별로 놀이하기
10:40 ~11:00	정리정돈	- 정리하기
11:00 ~11:30	대그룹 활동	- 노래 부르기, 동화듣기, 게임 등 - 실내외 놀이(유희실, 대근육 활동 등)
11:30 ~11:50	식사준비	- 손 씻기 - 점심 준비하기
11:50 ~12:50	점심식사 및 이닦기	- 올바른 태도와 질서로 음식을 골고루 먹기 - 식기 정리하기 - 바른 양치질하기
12:50 ~13:30	소그룹 활동	- 연장 작업 활동 및 자유놀이 활동
13:30 ~14:10	실외 놀이 및 산책하기	- 주제에 따른 대근육 활동과 산책

14:10 ~14:30	평가 및 잠자리 준비	- 오전 일과 평가 및 화장실 다녀오기 - 교실 정돈 및 잠자리 준비
14:30 ~16:00	낮잠 및 휴식	- 음악을 들으며 낮잠 및 휴식 취하기
16:00 ~16:30	오후 간식	- 이불개기 및 오후 간식 먹기 - 세안하기, 머리 빗기
16:30 ~17:10	오후 확장놀이	- 어린이집 주변 산책하기 - 날씨에 따라 실외·실내 유희실에서 놀이하기
17:10 ~17:30	정리정돈 및 귀가준비	- 소지품 정리 - 옷을 정리하고 귀가 준비하기
17:30 ~19:30	자유선택활동 및 귀가	- 부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자유선택 놀이하기 - 부모와 영아의 하루 생활 상태 이야기하기

5) 특별활동에 대한 C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견해

C 어린이집 교사는 특별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특별활동으로 인한 침해를 받지 않고 하루일과를 이어갈 수 있음을 꼽는다. C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육 영아의 인원이 적어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각 반의 영아들이 모두 거실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간은 영아들이 함께 대근육 활동을 한다거나, 새노래를 배우거나, 교사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C 어린이집은 바람직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기관이 특별활동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맞게 특별활동을 변형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한다. 즉 특별활동 운영과 기관의 일과가 별개로 운영되기 보다는 기관의 연안·월안·주안에 맞도록 특별활동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특별활동 선생님과 담임교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한층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C 어린이집은 영아에게 특별활동을 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부모도 다른 아이들이 모두 특별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현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C 어린이집은 특히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들은 오감을 활용하여 직접 눈

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어보는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형화되어있는 특별활동은 영아에게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진흙놀이를 하더라도 틀에 박힌 작업이 아니라 바닥에 진흙을 깔아놓고 직접 영아들이 뒹굴고 느끼면서 만드는 활동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하여 영아들을 단순히 놀이 하도록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있는 놀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활동들이 서로 연계성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C 어린이집 교사는 특별활동을 하면 솔직히 교사의 몸은 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사의 마음은 무겁다고 이야기한다. 특별활동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만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영아의 특성을 파악해서 상호작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은 가베, 오르다 등의 특별활동 흐름이 있는 것 같다고 보면서,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기 보다는 전통사상과 문화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영아에게 맞는 교육내용을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영아에게는 옛날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른 것처럼 스킨십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부모협동 보육시설: D 어린이집 사례

1) 일반적인 배경

D 어린이집은 공동육아의 형태로 운영되며, 3세부터 7세까지 34명의 유아를 3개 반에서 보육하고 있다. 교직원인 시설장 1명, 전담교사 5명, 반일교사 1명, 영양교사 1명, 조출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D 어린이집의 영아 대 성인의 비율은 약 1:3.8 명이다.

공동육아의 핵심은 부모는 물론 유아와 관련된 각종 사회조직과 집단이 육아의 책임자가 되어 아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2) 교육 철학 및 목적

공동육아 D 어린이집은 교육이란 삶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삶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관계맺음이라고 본다. 이때 관계 맺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맺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 맺음이다. 때문에 공동육아적인 삶의 방식은 공

동육아에 참여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 교사, 지역 사회 사람 등 어른 모두에게 육아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 삶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일상의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특성에 기초하여 D 어린이집은 창조적 주체적인 전인교육, 자연 친화교육(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 교육(평등하고 다양한 관계 맺기,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교육하고 있다.

3) 일과 운영의 예

공동육아 D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운영표는 <표 III-3-10> 과 같다.

<표 III-3-10> D 어린이집 하루일과 운영표

시간	활동
07:30 ~08:50	- 등원 및 아침 도시락, 마무리
08:50 ~09:40	- 아침활동 및 자유놀이
09:40 ~10:00	- 정리하기 및 전체 아침열기 (인사하기, 몸풀기, 공지사항)
10:00 ~10:20	- 간식먹기 (각방 또는 연합방 : 손씻기)
10:20 ~12:00	- 나들이
12:00 ~13:00	- 점심식사
13:00 ~13:20	- 양치질, 자유놀이
13:20 ~14:00	- 낮잠 전 활동 (옛이야기, 그림책, 종이접기, 말놀이)
14:00 ~15:50	- 낮잠 및 휴식
15:50 ~16:20	- 일어나서 정리 (민요, 노래부르기, 몸풀기)
16:20 ~16:50	- 오후간식
16:50 ~17:30	- 오후활동 (방별 활동, 놀이마당, 모둠별 장기 활동)

17:30 ~18:40	- 자유선택놀이, 마당놀이
18:40 ~19:30	- 오후 담기 및 하원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우 <표 III-3-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일과의 용어가 다른 어린이집과는 조금 다르다. 주요 사용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육아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활동이 바로 ‘나들이’이다. 나들이란 말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으로 자연과 놀이를 통해 자연의 본성을 지닌 아이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나들이에는 매일 이뤄지는 일상적인 나들이와 다소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긴 나들이가 있다. 일상적인 나들이는 날씨가 아주 춥거나 덥지 않은 한,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8개월 이상의 모든 아이들이 주로 어린이집 가까이 있는 산이나 동네로 함께 떠난다. 긴나들이는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 전체가 한 장소로 점심을 준비해가서 하루 종일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 나들이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획하며 탐구활동이나 체험활동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장기활동’은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하고 심도 깊게 장기간 탐구해보는 활동을 말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장기활동 주제는 나들이를 통한 탐색활동과 계절에 따른 변화, 전래놀이에 관련된 활동이 대부분을 이룬다. 텃밭 가꾸기는 봄에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 시작해 물주기, 김매기, 수확해서 음식 만들어먹기까지 아이들과 교사들이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을 관찰일지로 계속 작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등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또한 공동육아에서는 ‘어린이집’이라는 말보다는 ‘터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터전’이란 우리 아이들의 실내 외 교육환경으로서의 어린이집과 그 부모들의 활동 공간이자, 아이를 포함한 가족의 나눔터로서 공동체적 육아를 실현해가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다. 유아들은 터전을 제집같이 드나들며, 제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뛰어놀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하루를 함께 보내는 교사들에게도 단순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동육아의 이상을 실현하는 터전이 된다. 또한 부모들도 아이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일상적인 발걸음 외에도 각종 모임으로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4) 특별활동에 대한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견해

공동육아 D 어린이집은 특기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특기교육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는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특정한 기능교육보다 오감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동육아 D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교육, 양성평등교육, 연령별 통합교육 등 여러 가지 통합교육을 통해 유아가 더불어 사는 삶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 덧붙여 자연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힌다. 공동육아 교사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의 사고가 넓혀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졸업생들의 예를 든다. 공동육아 졸업생의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선행학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학습적인 면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2~3학년이 되면 따라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관계를 잘 맺는다고 말한다.

공동육아 D 어린이집은 때에 따라서 전통교육의 일환으로 풍물놀이와 같은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때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에 포함되거나 시에서 지원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동육아 D 어린이집은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 지정하여 분절되게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하루의 흐름을 살릴 수 있는 생활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바람직한 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하여 유아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은 유아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육아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어떤 교사이든 유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유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밝히며, 다만 기관에 따라 운영자체가 다르다보니 소신이 있더라도 소신대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원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와 유아가 같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소통관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V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IV.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 현황

1. 특별활동 내용

가. 특별활동 실시여부와 비용 유무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여부와 비용유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IV-1-1> 과 같다. 연구대상 시설 중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95.4%,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곳은 4.6%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 중 53.0%만 특별활동을 위하여 특별활동비나 교재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어 특별활동의 개념을 협의로 보았을 때 보육시설의 절반 정도에서 별도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만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소재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유료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1-1>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비용유무

구분	실시함		실시안함	소계
	유료	무료		
전체	53.0(532)	42.4(425)	4.6(46)	100.0(1,003)
설립유형				
국공립	72.7(48)	22.7(15)	4.5(3)	100.0(66)
법인	62.9(44)	35.7(25)	1.4(1)	100.0(70)
부모협동	-	-	100.0(1)	100.0(1)
개인민간	63.0(272)	35.0(151)	2.1(9)	100.0(432)
직장	50.0(6)	50.0(6)	-	100.0(12)
가정	38.4(162)	54.0(228)	7.6(32)	100.0(422)
소재지역				
대도시	59.3(227)	35.2(135)	5.5(21)	100.0(383)
중소도시	48.2(262)	47.8(260)	4.0(22)	100.0(544)
읍면지역	56.6(43)	39.5(30)	3.9(3)	100.0(76)

단위: %(개소)

시설규모				
20인 이하	38.4(179)	53.9(251)	7.7(36)	100.0(466)
21인 ~ 39인	60.2(136)	37.2(84)	2.7(6)	100.0(226)
40인 ~ 65인	68.7(101)	29.9(44)	1.4(2)	100.0(147)
66인 이상	70.7(116)	28.0(46)	1.2(2)	100.0(164)

주: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100.0%가 안 되는 경우 있음

특별활동을 유료로 실시할 경우 교재비와 활동비 수납의 유무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1-2> 와 같다. 교재비와 활동비를 모두 받는 시설은 23.7%였으며, 교재비 없이 활동비만 받는 시설은 67.7%, 활동비 없이 교재비만 받는 시설은 8.6%였다.

<표 IV-1-2> 유료일 경우 교재비와 활동비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유료			소계
	교재비와 활동비 수납	활동비만 수납	교재비만 수납	
전체	23.7(126)	67.7(360)	8.6(46)	100.0(532)

한편 조사 대상 시설 중 각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채용하는 기관수와 채용하고 있는 연령의 영유아에 대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1-3> 과 같다.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만 5세가 99.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만 4세가 98.63%, 3세가 95.50%, 2세가 77.61%순이었다. 한편 만 0세는 14.47%로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IV-1-3> 연령별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채원 기관 수	특별활동 실시 기관 수	특별활동 실시 비율
0세	470	68	14.47
1세	784	340	43.37
2세	947	735	77.61
3세	756	722	95.50
4세	583	575	98.63
5세	490	487	99.39

나. 특별활동 실시 종류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그 종류의 개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1-4>와 같다. 특별활동 종류의 수는 1가지를 실시하는 시설부터 10가지를 실시하는 시설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가지, 4가지, 1가지, 5가지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직장, 가정 시설은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으나, 법인과 개인민간시설은 3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는 대도시는 3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시설규모별로는 20인 이하의 시설이 2가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21인 이상의 시설은 3가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1-4> 실시하는 특별활동 개수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활동 수							합계
	1	2	3	4	5	6	7개 이상	
전체	14.1	27.7	26.4	14.7	9.6	3.9	3.6	100.0(959)
설립유형								
국공립	3.1	34.4	32.8	21.9	4.7	1.6	1.6	100.0(64)
법인	13.0	27.5	30.4	14.5	5.8	5.8	2.8	100.0(69)
부모협동	-	-	-	-	-	-	-	-
개인민간	6.9	21.0	26.7	17.7	13.2	7.3	7.1	100.0(423)
직장	-	58.3	33.3	-	8.3	-	-	100.0(12)
가정	24.3	33.0	24.0	10.7	7.2	0.3	0.6	100.0(391)
소재지역								
대도시	12.7	25.3	29.8	11.8	11.0	4.7	4.7	100.0(363)
중소도시	15.1	28.9	23.5	16.8	9.0	3.6	3.1	100.0(523)
읍면지역	13.7	31.5	30.1	13.7	6.8	1.4	1.4	100.0(73)
시설규모								
20인 이하	23.1	31.5	25.5	11.6	6.7	1.2	0.2	100.0(432)
21인~ 39인	5.9	26.4	26.8	20.0	11.4	5.0	4.5	100.0(220)
40인~ 65인	9.0	22.1	26.9	17.9	13.1	6.2	4.9	100.0(145)
66인 이상	5.6	24.7	27.8	13.0	11.7	7.4	9.9	100.0(162)

한편,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개수의 평균은 <표 IV-1-5>와 같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1개에서 10개까지 특별활동을 실시하며, 평균적으로 3개 정도(SD=1.63)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개수는

시설유형($F_{(6, 951)}=30.88, p<.001$)과 시설규모($F_{(3, 952)}=33.37,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 시설 유형별로는 개인민간 시설이 법인 시설과 가정 시설에 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가 의미 있게 많았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 이하의 시설이 20인 이상 시설에 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가 의미 있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수

단위: 개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956	3.08	1.63	10	1
설립유형					
국공립	63	3.05	1.20	8	1
법인	69	3.03 ^a	1.52	8	1
부모협동	-	-	-	-	-
개인민간	423	3.66 ^b	1.79	10	1
직장	12	2.58	0.90	5	2
가정	389	2.47 ^a	1.27	10	1
F(df)			30.88 ^{***} (4)		
소재지역					
대도시	362	3.19	1.65	9	1
중소도시	521	3.03	1.62	10	1
읍면지역	73	2.88	1.52	10	1
F(df)			1.67(2)		
시설규모					
20인 이하	429	3.40 ^a	1.56	9	1
21인~ 39인	220	3.40 ^b	1.56	9	1
40인~ 65인	145	3.46 ^b	1.66	9	1
66인 이상	162	3.73 ^b	1.98	10	1
F(df)			33.37 ^{***} (3)		

***p < .001

* a, b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다. 특별활동 종류별 내용

특별활동의 종류별 내용은 〈표 IV-1-6〉과 같다. 특별활동의 종류는 크게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 이용, 기타의 9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 내용이 가장 적은 것은 과학과 수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4가지였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은 교구 이용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이 무려 19가지나 되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중 연구자들이 처음 들어본 것들도 상당수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육시설 현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6〉 특별활동 종류별 내용

종류	내용	개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그리기, 만들기, 종이접기, 점토(칼라믹스 등), 플레이아트, 도자기 공예, 통합미술, NIE, 미술치료	9
음악 관련 프로그램	피아노, 바이올린, 국악(장구, 소고, 전래동요), 유아음악 일반, 유리드믹스, 리듬악기, 오르프, 킨더뮤직, 아마데우스, 핸드벨, 오카리나	11
체육 관련 프로그램	체육 일반, 태권도, 태권, 발레나 무용, 유아체조, 수영, 인라인, 댄스 스포츠, 키즈 요가, 단전호흡, 검도, 우리춤	12
과학 관련 프로그램	과학 실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창의력 과학, 요리	4
수학 관련 프로그램	학습지, 수학교구, 놀이수학, 주산	4
한글 관련 프로그램	글짓기(논술), 학습지, 동화구연, 웅변, 한글 플래시 카드, 독서 지도, 말하기 지도, 보너뜨(독후표현활동)	8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	영어, 일본어, 중국어	3
교구 이용 프로그램	프뢰벨, 오르다, 레고, 몬테소리, 가베(은물), 델타 샌드, 시찌다, 하바, 마그네, 버그박사, 물폰, 큐빅, 색도형, 피타고라스, 바오피스, 피아제, 도트카드놀이, 케이넥스, 도미노	19
기타	컴퓨터, 다도, 바둑, 한문, 예절, 전래놀이, 베이비 마사지, 종교수업(인성교육), 통합교과형 학습지, 북아트, 브레인 놀이, 팻씨아이, 프로젝트, 주말농장, 덩동댕(창의력), 발도르프, 비테교육, 아기탄생(글레도만), 호크마, 오감발달	20

2. 특별활동 운영 형태

가. 특별활동 선택방법

특별활동의 선택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2-1> 과 같다. 전체적으로 선택보다는 의무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 종류별로 보면, 컴퓨터 활동을 제외하고는 특별활동을 의무로 실시하는 비율이 선택으로 실시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특별활동의 선택 여부

단위: %(응답수)

구분	선택	의무	합계
전체	35.3(1,041)	64.7(1,904)	100.0(2,945)
미술	34.5(100)	65.5(190)	100.0(290)
음악	34.6(102)	65.4(193)	100.0(295)
체육	33.3(167)	66.7(335)	100.0(502)
과학	35.9(52)	64.1(93)	100.0(145)
수학	44.0(22)	56.0(28)	100.0(50)
한글	37.7(49)	62.3(81)	100.0(1130)
외국어	40.7(291)	59.3(424)	100.0(715)
교구이용	32.0(225)	68.0(478)	100.0(703)
기타	27.9(31)	72.1(80)	100.0(111)

특별활동의 연령별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2-2> 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어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과학, 한글, 기타, 수학 순이었다.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이 0세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한글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1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체육, 외국어, 미술, 음악, 한글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2세의 경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국어, 체육, 미술, 음악, 한글, 과학, 수학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3세의 경우 외국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미술, 음악, 과학, 한글, 수학 프로그램 순이었다. 만

4세와 5세의 경우 동일하게 외국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과학, 한글, 수학, 컴퓨터 프로그램 순이었다.

〈표 IV-2-2〉 유형별·연령별 특별활동 실시비율

단위: %(응답수)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 이용	기타	합계
전체	9.8 (290)	10.0 (296)	17.1 (506)	4.9 (145)	1.7 (50)	4.5 (132)	24.3 (717)	23.9 (706)	3.8 (111)	100.0 (2,953)
연령										
만 0세	8.0 (9)	12.4 (14)	15.0 (17)	2.6 (3)	-	8.0 (9)	18.6 (21)	23.0 (26)	12.4 (14)	100.0 (113)
만 1세	11.6 (80)	9.2 (63)	20.1 (138)	1.9 (13)	3.5 (4)	3.9 (27)	17.6 (121)	31.0 (213)	4.1 (28)	100.0 (687)
만 2세	10.9 (196)	7.7 (139)	19.6 (352)	2.9 (53)	1.0 (18)	3.9 (70)	23.1 (416)	28.6 (514)	2.3 (42)	100.0 (1,800)
만 3세	10.1 (216)	8.7 (186)	18.0 (385)	5.2 (110)	1.4 (30)	3.7 (80)	26.5 (566)	23.5 (502)	2.8 (60)	100.0 (2,135)
만 4세	10.0 (192)	11.0 (213)	18.0 (348)	6.0 (115)	1.7 (32)	3.7 (71)	26.2 (506)	19.3 (372)	4.1 (80)	100.0 (1,929)
만 5세	9.6 (165)	12.4 (213)	17.8 (306)	6.0 (103)	1.9 (32)	3.7 (63)	25.9 (445)	18.3 (314)	4.6 (79)	100.0 (1,720)

나. 특별활동 담당자

특별활동 담당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2-3〉와 같다. 특별활동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에 비해 외부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활동의 종류별로 보면, 미술, 과학, 수학, 한글, 교구 이용 관련 활동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음악, 체육, 외국어 관련 활동의 경우에는 별도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보육교사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수학 관련 활동이었으며, 별도 강사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외국어 관련 활동이었다.

〈표 IV-2-3〉 특별활동 담당자

단위: %(응답수)

구분	외부강사	보육교사	소계
전체	60.3(1,781)	39.7(1,171)	100.0(2,952)
미술	34.9(101)	65.1(188)	100.0(289)
음악	78.8(234)	21.2(63)	100.0(297)
체육	85.1(429)	14.9(75)	100.0(506)
과학	31.0(45)	69.0(100)	100.0(145)
수학	18.4(9)	81.6(40)	100.0(49)
한글	41.2(54)	58.8(77)	100.0(131)
외국어	89.0(638)	11.0(79)	100.0(717)
교구 이용	31.7(224)	68.3(482)	100.0(706)
기타	41.4(46)	58.6(65)	100.0(111)

비용 유무에 따른 특별활동 담당자의 비율은 〈표 IV-2-4〉와 같다.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보다 별도 강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47.9%의 특별활동을 외부강사가 담당하였다. 유료로 실시하는 경우 수학 관련 프로그램에서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과학, 한글, 교구 이용 관련 프로그램도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에서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체육과 음악 관련 프로그램도 외부 강사 활용 비율이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비용 유무에 따른 특별활동 담당자

단위: %(응답수)

구분	유료			무료		
	외부강사	보육교사	소계	외부강사	보육교사	소계
전체	68.2(1,236)	31.8(577)	100.0(1,813)	47.9(545)	52.1(592)	100.0(1,137)
미술	56.9(99)	43.1(75)	100.0(174)	22.8(26)	77.2(88)	100.0(114)
음악	82.4(159)	17.6(34)	100.0(193)	72.1(75)	27.9(29)	100.0(104)
체육	90.9(289)	9.1(29)	100.0(318)	75.3(140)	24.7(46)	100.0(186)
과학	31.1(32)	68.9(71)	100.0(103)	31.0(13)	69.0(29)	100.0(42)
수학	17.1(6)	82.9(29)	100.0(35)	21.4(3)	78.6(11)	100.0(14)

한글	43.6(34)	56.4(44)	100.0(78)	37.7(20)	62.3(33)	100.0(53)
외국어	93.5(432)	6.5(30)	100.0(462)	80.8(206)	19.2(49)	100.0(255)
교구 이용	45.5(176)	54.5(211)	100.0(387)	15.0(48)	85.0(271)	100.0(319)
기타	52.5(32)	47.5(29)	100.0(61)	28.6(14)	71.4(35)	100.0(49)

다. 특별활동 실시시간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표 IV-2-5> 와 같다. 특별활동을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에 다 하는 경우가 31.5%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오후 보육시간 중에 하는 경우가 23.3%로 가장 적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개인민간 보육시설은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 중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법인과 가정 보육시설은 오전에, 직장은 오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재지역별로 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표 IV-2-5> 특별활동 시간대

구분	단위: %(개소)			합계
	오전	오후	오전·오후	
전체	45.1(432)	23.3(223)	31.6(302)	100.0(957)
설립유형				
국공립	20.3(13)	32.8(21)	46.9(30)	100.0(64)
법인	39.1(27)	23.2(16)	37.7(26)	100.0(69)
부모협동	-	-	-	-
개인민간	31.1(131)	32.1(135)	36.8(155)	100.0(421)
직장	8.3(1)	58.3(7)	33.3(4)	100.0(12)
가정	66.5(260)	11.3(44)	22.3(87)	100.0(391)
소재지역				
대도시	39.5(143)	26.8(97)	33.7(122)	100.0(362)
중소도시	48.7(254)	21.6(113)	29.7(155)	100.0(522)
읍면지역	47.9(35)	17.8(13)	34.2(25)	100.0(73)
시설규모				
20인 이하	63.0(272)	14.4(62)	22.7(98)	100.0(432)

21인 ~ 39인	30.6(67)	38.4(84)	31.1(68)	100.0(219)
40인 ~ 65인	30.3(44)	26.2(38)	43.4(63)	100.0(145)
66인 이상	30.4(49)	24.2(39)	45.3(73)	100.0(161)

라. 특별활동 실시장소

특별활동 실시장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2-6> 과 같다. 대부분의 활동은 보육시설에서 실시되었으며, 간혹 사유시설이나 공용시설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수학과 컴퓨터 관련 활동은 100%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며, 체육 관련 활동은 사유시설에서 실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타로는 공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육시설과 사유시설, 보육시설과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표 IV-2-6> 특별활동 실시장소

구분	보육시설	사유시설	기타	합계
관련활동				
미술	98.6(283)	1.4(4)	-	100.0(297)
음악	98.6(292)	1.4(4)	-	100.0(296)
체육	80.7(405)	14.9(75)	4.4(22)	100.0(502)
과학	97.9(142)	0.7(1)	0.7(1)	100.0(145)
수학	100.0(50)	-	-	100.0(50)
한글	99.2(131)	0.8(1)	-	100.0(132)
외국어	99.3(709)	0.7(5)	-	100.0(714)
교구이용	99.6(697)	0.4(3)	-	100.0(700)
기타	96.7(118)	-	3.3(4)	100.0(122)

단위: %(응답수)

마. 외부학원 연계

외부 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IV-2-7> 과 같다. 외부 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부모님에게 소개해 주는 경우는 17.1%로 소개해주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적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개인민간 보육시설이 소개해 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장 보육시설은 소개해 주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도 소개해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소재지역 로 보면, 대도시가 소개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소개해주는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21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이 소개해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외부학원 실시 특별활동 부모 소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소개함	소개하지 않음	합계
전체	17.1(171)	82.9(831)	100.0(1002)
설립유형			
국공립	4.5(3)	95.5(64)	100.0(67)
법인	11.4(8)	88.6(62)	100.0(70)
부모협동	-	100.0(1)	100.0(1)
개인민간	24.1(104)	75.9(328)	100.0(432)
직장	-	100.0(12)	100.0(12)
가정	13.3(56)	86.7(364)	100.0(420)
소재지역			
대도시	23.2(89)	76.8(295)	100.0(384)
중소도시	14.0(76)	86.0(466)	100.0(542)
읍면지역	7.9(6)	92.1(70)	100.0(76)
시설규모			
20인 이하	13.3(62)	86.7(403)	100.0(465)
21인 ~ 39인	22.1(50)	77.9(176)	100.0(226)
40인 ~ 65인	19.0(28)	81.0(119)	100.0(147)
66인 이상	18.9(31)	81.1(133)	100.0(164)

보육시설에서 외부 학원 등에서 하는 특별활동을 부모에게 소개해줄 경우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2-8> 와 같다. 부모님의 요구가 78.9%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원 등과의 친분은 6.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타 이유가 14.5%로 나타났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특기를 파악하고자, 영유아의 다양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영유아가 재능이 있어서, 큰아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이라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센터 등에서 홍보를 요청해서,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사가 보기에 필요하고 좋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V-2-8> 소개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부모님의 요구	학원 등과의 친분	기타	합계
전체	78.9(131)	6.6(11)	14.5(24)	100.0(166)
설립유형				
국공립	100.0(3)	-	-	100.0(3)
법인	85.7(6)	-	14.3(1)	100.0(7)
부모협동	-	-	-	-
개인민간	84.6(88)	4.8(5)	10.6(11)	100.0(104)
직장	-	-	-	-
가정	65.4(34)	11.5(6)	23.1(12)	100.0(52)
소재지역				
대도시	75.6(65)	8.1(7)	16.3(14)	100.0(86)
중소도시	82.4(61)	5.4(4)	12.2(9)	100.0(74)
읍면지역	83.3(5)	-	16.7(1)	100.0(6)
시설규모				
20인 이하	65.5(38)	10.3(6)	24.1(14)	100.0(58)
21인 ~ 39인	84.0(42)	10.0(5)	6.0(3)	100.0(50)
40인 ~ 65인	81.5(22)	-	18.5(5)	100.0(27)
66인 이상	93.5(29)	-	6.5(2)	100.0(31)

3. 특별활동 실시 이유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표 IV-3-1> 과 같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은 부모의 요구 때문(27.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24.4%)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적인 결과와 다르게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장과 가정 보육시설은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 보면, 소재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시설 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기타에는 교사의 업무분담 및 시설 운영의 재정적 도움 등이 있었다.

<표 IV-3-1> 특별활동 실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부모의 요구	영유아 발달에 도움	프로그램 다양화	기타	합계
전체	27.1(260)	47.5(456)	24.4(234)	0.9(9)	100.0(959)
설립유형					
국공립	42.2(27)	39.1(25)	18.8(12)	-	100.0(64)
법인	36.2(25)	44.9(31)	17.4(12)	1.4(1)	100.0(69)
부모협동	-	-	-	-	-
개인민간	34.8(147)	37.4(158)	26.0(110)	1.9(8)	100.0(423)
직장	16.7(2)	66.7(8)	16.7(2)	-	100.0(12)
가정	15.1(59)	59.8(234)	25.1(98)	-	100.0(391)
소재지역					
대도시	30.6(111)	47.9(174)	20.7(75)	0.8(3)	100.0(363)
중소도시	23.0(125)	47.8(250)	27.7(145)	0.6(3)	100.0(523)
읍면지역	32.9(24)	43.8(32)	19.2(14)	4.1(3)	100.0(73)
시설규모					
20인 이하	15.3(66)	60.2(260)	24.5(106)	-	100.0(432)
21인 ~ 39인	30.5(67)	40.9(90)	25.9(57)	2.7(6)	100.0(220)
40인 ~ 65인	39.3(57)	31.7(46)	27.6(40)	1.4(2)	100.0(145)
66인 이상	43.2(70)	37.0(60)	19.1(31)	0.6(1)	100.0(162)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설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시설은 한 곳밖에 없었으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보육시설은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40인 이상 65인 이하 시설 모두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고, 20인 이하 보육시설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다.

<표 IV-3-2>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개소)

구 분	많이 도움	조금 도움	합계
전체	87.7(401)	12.3(56)	100.0(457)
설립유형			
국공립	100.0(24)	-	100.0(24)
법인	90.9(30)	9.1(3)	100.0(33)
부모협동	-	-	-
개인민간	91.1(144)	8.9(14)	100.0(158)
직장	100.0(8)	-	100.0(8)
가정	83.3(195)	16.7(39)	100.0(234)
소재지역			
대도시	88.5(154)	11.5(20)	100.0(174)
중소도시	87.6(218)	12.4(31)	100.0(249)
읍면지역	85.3(29)	14.7(5)	100.0(34)
시설규모			
20인 이하	84.6(220)	15.4(40)	100.0(260)
21인 ~ 39인	90.0(81)	10.0(9)	100.0(90)
40인 ~ 65인	100.0(46)	-	100.0(46)
66인 이상	88.5(54)	11.5(7)	100.0(61)

4. 특별활동 비용

가. 특별활동 비용 수납방법

특별활동 참가비용 수납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4-1> 과 같다. 대체적으로 매월 받는 곳이 가장 많았고, 분기, 반기, 연으로 받는 경우는 소수였다. 컴퓨터 관련 활동의 경우 분기별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특별활동비 수납방법

단위: %(응답수)

구분	매월	분기	반기	연	합계
전체	89.3(1,107)	3.7(46)	3.2(40)	3.8(47)	100.0(1,240)
관련활동					
미술	90.0(99)	2.7(3)	1.8(2)	5.5(6)	100.0(110)
음악	89.0(105)	6.8(8)	2.5(3)	1.7(2)	100.0(118)
체육	94.3(181)	2.1(4)	2.6(5)	1.0(2)	100.0(314)
과학	88.1(59)	4.5(3)	6.0(4)	1.5(1)	100.0(67)
수학	89.7(26)	10.3(3)	-	-	100.0(29)
한글	87.7(50)	1.8(1)	5.3(3)	5.3(3)	100.0(57)
외국어	90.7(360)	3.5(14)	4.0(16)	1.8(7)	100.0(397)
교구이용	87.0(208)	2.5(6)	2.1(5)	8.4(20)	100.0(239)
기타	62.5(20)	12.5(4)	6.3(2)	18.8(6)	100.0(32)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부모대표와의 심의나 협의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4-2> 과 같다. 응답 시설의 85.2%가 심의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시설에서는 대체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나 부모대표와의 심의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법인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의나 협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심의나 협의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시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심의나 협의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4-2〉 특별활동비의 심의·협의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85.2(471)	14.8(82)	100.0(553)
설립유형			
국공립	96.2(51)	3.8(2)	100.0(53)
법인	90.5(38)	9.5(4)	100.0(42)
부모협동	-	-	-
개인민간	87.9(248)	12.1(34)	100.0(282)
직장	85.7(6)	14.3(1)	100.0(7)
가정	75.7(128)	24.3(41)	100.0(169)
소재지역			
대도시	86.0(202)	14.0(33)	100.0(235)
중소도시	83.0(229)	17.0(47)	100.0(276)
읍면지역	95.2(40)	4.8(2)	100.0(42)
시설규모			
20인 이하	76.3(142)	23.7(44)	100.0(186)
21인 ~ 39인	84.2(123)	15.8(23)	100.0(146)
40인 ~ 65인	92.1(93)	7.9(8)	100.0(101)
66인 이상	94.2(113)	5.8(7)	100.0(120)

나. 연령별, 활동별 특별활동 비용

연령별 특별활동비는 〈표 IV-4-3〉와 같다. 특별활동비를 받을 경우 특별활동 하나당 수납비용 평균은 15,591원이었다.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120,000원이고, 최소값은 1,000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세가 18,83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만 5세, 만 2세, 4세, 3세, 1세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3가지 특별활동에 참가하고, 특별활동의 38%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수납한다고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약 18,000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3〉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3,148	15,591	10,619	120,000	1,000
만 0세	12	18,833	10,338	50,000	12,000
만 1세	124	15,154	7,564	39,000	4,000
만 2세	548	15,755	10,091	90,000	2,000
만 3세	865	15,290	10,446	120,000	1,000
만 4세	838	15,525	10,808	120,000	1,000
만 5세	761	15,907	11,494	120,000	1,000

특별활동 종류별 평균 특별활동비는 〈표 IV-4-4〉 과 같다. 특별활동 종류에 따라 특별활동비용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술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이 19,58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구이용 프로그램이 17,095원, 음악 16,561원, 외국어 15,183원 순이었다. 한편 특별활동 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과학 프로그램으로 10,679원이었다. 비용의 최대값은 외국어 프로그램 120,000만원이었으며, 최소값은 기타 1,000원이었다. 미술과 수학 프로그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체육, 과학의 경우 만 0세나 만 1세의 어린 연령에 대한 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4-4〉 특별활동 종류별 평균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특별활동 종류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3,148	15,591	10,619	120,000	1,000
미술	313	19,588	11,883	50,000	3,300
음악	333	16,561	11,740	55,000	3,000
체육	589	13,865	9,605	50,000	2,500
과학	152	10,679	6,399	30,000	3,000
수학	52	16,046	12,004	50,000	5,000
한글	97	12,472	7,640	50,000	3,000
외국어	959	15,183	10,461	120,000	3,300
교구이용	596	17,095	10,062	60,000	2,000
기타	58	15,095	13,458	60,000	1,000

연령별 미술 특별활동비는 <표 IV-4-5> 과 같다. 미술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 1세의 미술 특별활동비 평균이 12,388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5세가 평균 20,393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술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5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3,300원이었다.

<표 IV-4-5> 연령별 미술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미술전체		313	19,588	11,883	50,000	3,300
미술	만 0세	0	-	-	-	-
	만 1세	16	12,388	4,892	24,500	5,000
	만 2세	56	18,810	11,433	50,000	5,000
	만 3세	85	19,985	12,363	50,000	5,000
	만 4세	82	20,387	12,269	50,000	3,300
	만 5세	74	20,393	12,754	50,000	3,300

연령별 음악 특별활동비는 <표 IV-4-6> 과 같다. 음악 특별활동비는 만 0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 1세의 음악 특별활동비 평균이 13,750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5세가 평균 18,256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0세는 17,500원으로 만 5세 다음으로 많았다. 미술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55,000원이었고, 최소값은 3,000원이었다.

<표 IV-4-6> 연령별 음악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음악전체		333	16,561	11,740	55,000	3,000
음악	만 0세	2	17,500	3,536	20,000	15,000
	만 1세	14	13,750	5,944	25,000	5,000
	만 2세	46	14,257	7,924	35,000	3,000
	만 3세	82	15,900	10,943	50,000	3,000
	만 4세	96	16,977	13,045	55,000	3,000
	만 5세	93	18,256	14,031	55,000	3,000

연령별 체육 특별활동비는 <표 IV-4-7> 과 같다. 체육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만 0세의 비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만 3세의 체육 특별활동비 평균이 13,070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0세가 평균 28,333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5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2,500원이었다.

<표 IV-4-7> 연령별 체육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체육전체		589	13,865	9,605	50,000	2,500
체육	만 0세	3	28,333	18,930	50,000	15,000
	만 1세	30	14,340	7,767	30,000	4,000
	만 2세	109	13,439	8,859	50,000	2,500
	만 3세	155	13,070	8,963	50,000	2,500
	만 4세	153	14,016	10,085	50,000	2,500
	만 5세	137	14,515	10,586	50,000	2,500

연령별 과학 특별활동비는 <표 IV-4-8> 과 같다. 과학 특별활동비는 만 1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만 2세는 낮게 나타났으며, 만3세~5세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 2세의 과학 특별활동비 평균이 9,031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1세가 평균 1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술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3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3,000원이었다.

<표 IV-4-8> 연령별 과학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과학전체		152	10,679	6,399	30,000	3,000
과학	만 0세	0	-	-	-	-
	만 1세	2	15,000	7,071	20,000	10,000
	만 2세	12	9,031	4,752	20,000	3,000
	만 3세	44	10,924	6,445	30,000	3,000
	만 4세	49	10,910	6,507	30,000	3,300
	만 5세	45	10,436	6,646	30,000	3,000

연령별 수학 특별활동비는 <표 IV-4-9> 와 같다. 수학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만 5세에서 다시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만 1세의 수학 특별활동비 평균이 12,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4세가 평균 17,312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학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5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5,000원이었다.

<표 IV-4-9> 연령별 수학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수학전체		52	16,046	12,004	50,000	5,000
수학	만 0세	0	-	-	-	-
	만 1세	1	12,000	-	12,000	12,000
	만 2세	5	12,540	10,033	30,000	6,000
	만 3세	14	15,407	13,047	50,000	5,000
	만 4세	16	17,312	12,176	50,000	5,000
	만 5세	16	16,688	12,285	50,000	5,000

연령별 한글 특별활동비는 <표 IV-4-10> 과 같다. 한글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 2세의 한글 특별활동비 평균이 10,792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0세가 평균 1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글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5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3,000원이었다.

<표 IV-4-10> 연령별 한글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한글전체		97	12,472	7,640	50,000	3,000
한글	만 0세	1	15,000	-	15,000	15,000
	만 1세	2	13,750	1,768	15,000	12,500
	만 2세	15	10,792	5,985	21,000	3,000
	만 3세	26	12,091	7,300	30,000	3,000
	만 4세	27	12,185	6,891	30,000	3,000
	만 5세	26	13,923	10,458	50,000	3,000

연령별 외국어 특별활동비는 <표 IV-4-11> 과 같다. 외국어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만 5세에서 다시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만 4세의 외국어 특별활동비 평균이 14,909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0세가 평균 17,5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어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12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3,300원이었다.

〈표 IV-4-11〉 연령별 외국어 특별활동비

단위: 응답수, 원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외국어전체		959	15,183	10,461	120,000	3,300
외국어	만 0세	2	17,500	3,536	20,000	15,000
	만 1세	23	16,500	7,587	30,000	5,000
	만 2세	159	15,545	10,087	90,000	3,300
	만 3세	281	15,067	10,451	120,000	3,300
	만 4세	262	14,909	10,434	120,000	3,300
	만 5세	232	15,233	11,104	120,000	3,300

연령별 교구이용 특별활동비는 〈표 IV-4-12〉와 같다. 교구이용 특별활동비는 연령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만 0세의 교구이용 특별활동비 평균이 14,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2세가 평균 17,926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구이용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6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2,000원이었다.

〈표 IV-4-12〉 연령별 교구이용 특별활동비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교구이용 전체		596	17,095	10,062	60,000	2,000
교구이용	만 0세	4	14,000	4,000	20,000	12,000
	만 1세	36	16,922	8,964	39,000	6,700
	만 2세	142	17,926	10,328	60,000	2,000
	만 3세	166	16,658	10,020	60,000	2,000
	만 4세	132	16,915	9,900	60,000	3,300
	만 5세	116	17,068	10,530	60,000	2,000

연령별 기타 특별활동비는 〈표 IV-4-13〉과 같다. 기타 특별활동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 5세의 기타 특별활동비 평균이 13,523원으로 가장 적었고, 만 2세가 평균 27,375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특별활동비의 최대값은 60,000원이었고, 최소값은 1,000원이었다.

〈표 IV-4-13〉 연령별 기타 특별활동비

활동	연령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기타전체		58	15,095	13,458	60,000	1,000
기타	만 0세	0	-	-	-	-
	만 1세	0	-	-	-	-
	만 2세	4	27,375	22,787	60,000	7,000
	만 3세	11	16,727	16,250	60,000	1,000
	만 4세	21	13,548	12,025	50,000	1,000
	만 5세	22	13,523	11,736	50,000	1,000

다. 특별활동 교재비

특별활동 평균 월 교재비는 〈표 IV-4-14〉와 같다. 특별활동 교재비를 받는 비율은 전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8.7% 정도이며, 1,000원에서 60,000원까지 그 편차가 심하고, 평균적으로는 8,35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교재비를 받는 경우는 외국어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한글, 과학 프로그램 순이었다. 미술, 교구이용, 기타 프로그램의 교재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학, 체육 프로그램의 교재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4-14〉 특별활동 월평균 교재비

단위: 응답수, 원

구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256	8,351	7,942	60,000	1,000
관련활동					
미술	13	10,321	15,942	60,000	1,667
음악	14	7,357	7,156	30,000	2,000
체육	5	5,200	3,114	10,000	2,000
과학	16	6,344	2,495	12,500	4,167
수학	14	4,905	2,882	10,000	1,000
한글	28	8,452	7,873	40,000	1,500
외국어	115	7,963	6,395	50,000	1,917
교구이용	41	10,089	8,439	3,5000	1,500
기타	10	13,842	15,484	50,000	1,667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보육전문가 견해

V.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보육전문가 견해

1. 영유아를 위한 특별활동의 방향*

오늘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보고」는 특별활동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과 보육현장의 입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충분한 인적 자원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별활동들이 영유아의 권리 즉 선택권, 발달권, 놀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고,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상업성을 띠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산물로서, 특별활동의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 “What”의 문제

“What”의 문제는 특별활동의 개념 정의(definition)와 내용(content)에 관한 문제이다. 특별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을 광의로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협의로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의 별도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흔히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관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기교육, 조기특기교육, 시간 연장제 프로그램, 방과 후 특별활동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영유아 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등 보육규정 관련 문서에서 특별활동이란 말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보육비용 관련 규정에서 특별활동에 대해 언급된 곳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2007년 서울시 보육사

* 육아정책개발센터가 개최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육아정책 세미나에서 정대련(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토론원고를 정리한 것임

업지침>에 따르면, 특기(특별) 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동의서 청구)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기활동비 등에 관해서는 실비 경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 상의 특별활동에 대한 모순된 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이 아니다.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정의처럼, 이 지침은 현재 등원하여 보육시설에 머무르고 있지만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보육시설의 관리를 벗어나 있다는 말처럼 해석될 수 있다. 장소만 보육시설일 뿐, 보육시설의 의사나 책임과는 관련 없이 전적으로 외부적 조건에만 의존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듯이 이해된다. 그런가 하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문구에서는 이미 그런 아동이 방치되고 있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다분함을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미 대다수 시설에서 우리 영유아들이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단초가 되는 개념적 정의부터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시행계획(2005)>은 유아발달에 “부적절한 특별활동”을 근절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도 “적절한” 경우라면 특별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애매하다. 다만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을 특별활동이라 명명하고 이를 근절하고 지도 감독하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특별활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육기관이라 하여 이 뜻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유아의 발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육활동이 유아를 위한 교육목적과 상치될 수 있는가?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활동비를 규정하기 이전에, 보육시설이 지향해야 할 궁극 목적에 대해 다시금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보육시설이라면,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 즉 사회관계, 의사소통, 신체·운동, 자연과학탐구, 예술탐구, 기본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문제를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육 현실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특별활동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가 쉽지 않음이 예상 가능하므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을 실시함이 과연 ‘적절한가’의 논제는 잠시 미루고, 현 실태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우선 특별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미술(9), 음악(13), 체육(12), 과학(4), 수학(4), 한글(8), 외국어(3), 교구 이용(19), 기타 (21) 등의 종류로 분류 집계되어 있다. 그리고 9가지 각각은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특별활동을 위의 9가지 종류로 범주화 할 때, 영어·일본어·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프로그램이 24.3%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었고, 교구를 이용한 프로그램 내용이 23.9%, 체육 관련 내용이 17.1%, 그리고 음악, 미술 등의 순서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 내용들은 “기본적인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서 “보육과정이 아니”지만,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거나, 보육교사 이외의 별도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수십만 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시설 내에서 다수의 보육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6개 영역(사회관계/의사소통/신체·운동/자연과학탐구/예술탐구/기본생활)의 활동권역을 벗어날 수 있는가? 즉 특별활동이 보육시설의 기본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보육시설의 보호와 양육이란 본질적인 임무, 다시 말해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몸과 마음을 기르는, 건강한 지덕체(智德體)를 키워야 할 임무가 특별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과는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져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이미 지나치게 번다하게 발전 전개되어 버린 현실적 여건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려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단정해야 하는가 하는 고뇌를 남긴다.

나. “Why” 에 관한 문제

“Why”에 관한 문제는 왜 특별활동을 해야 하는가(purpose) 또는 특별활동이 왜 필요한가(objectives) 하는 문제이다.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첫째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47.5%). 직장소속시설의 100%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의 90%가 영유아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으며 ‘조금 도움이 된다’를 합하면 100%로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기왕에 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인 만큼 재원 영유아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리란 믿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지는 발달과 그러한 발달을 위한 지원 방법을 밝혀왔다. 걸음마기 즉 18개월~36개월 유아는 하루 12시간의 충분한 수면(신홍범, 2007)을 취해야 하고, 자기 충동(공격성) 조절과 통제, 만족 지연능력 획득, 옹고 그룹이나 깨끗함과 더러움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구별, 대상 항상성(object constancy) 및 분리 계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등 심리적 자아상과 자율성의 확립(천근아, 2007)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부모나 교사는 오감 교육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고 스킨십과 애착형성, 즐겁게 놀면서 말을 많이 해주고 충분한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홍강의, 2007).

학령전기인 3~6세의 유아는 하루 평균 11~12시간의 수면을 취하고(신홍범, 2007), 동성 부모를 동일시(Oedipus complex)하며 성적 역할을 습득하고, 사회화 되고,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 등 대인관계에 필요한 덕목을 습득하여야 한다(천근아, 2007). 그리고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종합적 사고기능과 인간성을 키우기 위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어 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게 하며, 남에 대한 배려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며, 자신의 생각·감정·행동을 인지하고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또래와의 접촉을 장려하고 함께 어울리게 해야 한다(홍강의 2007).

그렇다면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발달을 추구한다 함은 이러한 발달지원의 요소와 얼마나 연관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의 요구(27.1%)와 프로그램의 다양화(24.4%)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자신들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린 자녀들의 “뛰어난” 발달을 그리며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리라 예상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부모들의 요구 내지 희망을 보육시설에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영유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발달을 고려할 때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기준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자녀들의 남보다 한 발 앞선 발달을 기대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조바심과 지나친 교육

열은 재원 시설의 충실한 보육에 만족하지 않고, “남보다 조금 다르고 하나 더 많은 또는 최소한 남에게 뒤지지 않는” 특별프로그램을 부추기는 세대에 눈 돌리도록 압박함으로써, 결국은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보육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과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투철한 보육철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다. “How”의 문제

“How”의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가(policy) 또는 특별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methods/skills)라는 문제이다.

특별활동의 각 프로그램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56%~72% 정도가 부모가 선택하기 보다는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만 3세를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4세, 2세, 5세, 1세, 0세 순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수가 많다. 특별활동비는 매월 수납하는 경우가 89.3%로 가장 많고, 분기별, 반기별, 연 단위로 수납하는 경우가 합하여 10% 정도이다. 연령별 평균 특별활동 비용은 1,000원부터 120,000원에 이르고, 0세를 위한 특별활동비가 평균 18,833원으로 가장 높다. 활동영역별 연령에 따른 평균 특별활동비는 외국어에서 만 3~5세 유아 대상이 120,000원으로 가장 높다. 과연 이러한 추가 수업료를 지불하며 실시하는 특별활동이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보육시설 관점에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별활동 선택이란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기 어렵다. 외부로부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함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였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장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깊게 인식하고 시설의 여러 인적 물적 요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가 담당한 유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한다면, 특별활동의 1개 추가 내지 10개 추가로 보육교사가 단지 담당 유아들에게 이 방 저 방 인도하는 길 안내자 역할만을 하며 오히려 산만한 보육의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별활동에 쏟는 보육비를 정상적인 보육에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장의 소신과 당국의 체제 정비를 통한 현실적 지원이 더욱 필요해지는 문제이다.

다른 한편 특별활동 실시 형태에 있어서 위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을 실시하는 형태 또는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프로그램 성격이 지니는 방법론은 무엇이며, 어떠한 교수법에 의하여 진행되는지에 따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 “When”에 관한 문제

“When”에 관한 문제는 특별활동을 해야 할 시기(critical period/optimum period)는 언제인가 또는 특별활동을 언제 하는가(time schedule)에 대한 문제이다.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시간대는 오전, 오전·오후, 오후 등으로 나누어 볼 때, 법인시설과 가정시설은 오전 시간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45.1%), 국공립시설과 개인민간시설은 오전·오후시간대(31.6%)를, 직장시설은 오후시간대(23.3%)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지역이나 시설규모에는 상관없이, 특별활동을 위해 할당하고 있는 시간대의 전체적 추이가 비슷하다. 이는 각 기관의 보육형태와 인적, 물적 환경적 요소, 그리고 특별활동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시간대를 배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인지적 또는 정적인 (활동적인에 대비된) 특별활동이면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오전 시간대 배정이 적절하거나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정서적 또는 활동이 큰 특별활동인 경우 오후 시간대 배정이 더 적절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전 오후 등 보육이 이루어지는 전 시간대를 관통하며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보육현장이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다른 한 편 특별활동프로그램이 표준보육과정의 현실적 적용의 한 예로 쓰이고 있다는 응답도 가능하다. 보육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일·주·월·연 단위의 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내용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작업은 보육교사의 연구와 충실한 준비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겠다.

한편 보다 기본적인 물음을 해본다면 특별활동의 적절한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소위 특별활동(교육)에 대해 적기(Optimum period) 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를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어린 시기의 교육에 있어서 각인, 결정적 시기, 최대 학습기, 학습 민감기, 학습 최적기를 고려한다면(홍강의, 2007),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똑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뇌 및 신체

각 부분의 가소성이 활발한 시기 즉 적기에 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맞는 발달 과제로서 유아의 감각·운동·정서·사회성·언어·인지 등 각 영역이 세분화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도록 특별활동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국의 특별활동이 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과 발달시기에 맞는 것인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 때가 적기이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다고 본다.

마. “Who” 의 문제

“Who”, 즉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며(subject, teacher, instructor), 특별활동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object, children, learner)라는 인적 요소와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담당자하고 있는 다수가 보육교사로 나타나고 있다. 수학 프로그램의 78.6%(무료, 유료프로그램인 경우 82.9%, 이하 동일순서임)를 필두로 하여, 미술 77.2%(43.1%), 과학 69.0%(68.9%) 한글 62.3%(56.4%), 교구 이용 프로그램의 71.4%(47.5%)를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특별활동은 외국어 프로그램(무료80.8%/유료93.5%)과 음악(72.1%/82.4%), 체육(75.3%/90.9 %) 활동들이다. 여기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다시금 제기된다.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연수 및 적용 기간과 전문 능력을 소지하고 실시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더불어 유아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적절한 교수법을 습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양측 모두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해당 특별활동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의욕 면에서는 이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각의 여건에서 이러한 의욕이 현실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한 예로 외국어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외국어 능통자나 외국어 전공자가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다.

또한 특별활동과 관련한 인적 요인으로서 영유아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연령 및 기타 각 영역별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우선이며, 특별활동은 차후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영유아의 발달적 가소성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유아가 능력이 동일하지도 않음도 사실이다. 지금 당장 영유아가 습득 가능하다고 해도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느낀다고 해도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무언중에 특별활동이 유아에게 과중할 경우 뒤따를 수 있

는 고통은 고스란히 유아에게 돌아간다는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도 가르칠 수 없으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들이 현재 표준보육과정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진실로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며, 그러한 결과가 바로 유아의 행복한 삶에 닿아있다고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

바. "Where"의 문제

"Where", 즉 특별활동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는가(institution) 또는 어디에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가(space) 하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95.6%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이 96.0%로 가장 높고, 시설규모가 클수록(66인 이상)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높다(98.8%).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종류는 시설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이며, 2개 내지 4개를 실시하는 시설이 대수를 이루고 있다. 2~4개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설립 유형별에서는 국공립 시설이 89.1%를, 소재 지역별에서는 읍면지역 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75.3%)을 보이고 있다. 읍면 지역에까지 2~4개 정도의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이 정도 비율로 실시하고 있음을 미루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적절한가, 또는 특별활동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제를 제기하기가 이미 현실적으로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미 특별활동에 관련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로 멀리 진전하고 진화해 버려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니 출발선상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함이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난을 받게 될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체육프로그램(80.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별활동(96.7%~100%)이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체육프로그램 14.9%가 기타 사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학, 컴퓨터프로그램(100%)을 비롯하여, 모든 특별활동이 보육시설을 주 활동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외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부모가 요구하기 때문에 소개하지만, 좋은 정보제공으로 기관과 부모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서 또는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소개하기도 하고, 교사가 필요성을 느끼거나 양질의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외부 특별활동시설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육시설 내부나 외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특별활동이 우리의 영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특별활동을 스스로 원하고 즐기며 그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아들은 새로운 경험이고 특별활동 교사가 제공하는 외적 보상에서 흥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특별활동을 재미나 흥미에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공부”로 생각하며 그 시간을 참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면이 더욱 크다. 또한 많은 교사들도 유아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객관적 관찰, 그리고 유아의 흥미나 발달 및 효과가 부모의 기대나 확신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도 이 시점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국제연합에 의하여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실행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법령과 제 수단에 의하여 아동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와 설비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제 2조).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와 적절한 영양의 공급, 주택, 여가 및 진료를 받을 권리(제 4조)를 가지며,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안정과 애정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에서 성장(제 6조)하여야 하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놀이와 여가를 누릴 기회(제 7조)를 가지고, 관용, 우정, 평화의 정신과 보편적인 양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양육(제 10조) 되어야 한다.

한편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날 정신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서도 천명한 바, 아동은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며,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 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하며,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고,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나아가 아동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하고,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00여 년 전, 코메니우스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는 유아가 어린 시기에 익히고 배워야 할 교육과정으로 형이상학, 자연학, 광학, 천문학, 지리학, 연대학, 역사, 산술, 기하학, 통계학, 기계학, 변증법, 모국어, 수사학, 시학, 음악, 가정경제운영, 정치학, 도덕(윤리), 종교 등 20개 항목을 포함시키며, 유아 시기에는 이러한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덕의 실천은 제 2의 본성이 되어야 하므로 도덕(윤리)은 유아기에 가장 견고하게 닦아 두어야 할 내용이라 강조하며, 절제, 청결함, 경외함, 순종, 진실, 정의, 사랑하기, 무위(無爲)함을 견딜 수 없는 마음, 적게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한 침묵 지키기, 인내심, 친절함, 마음과 타인을 기쁘게 돕는 마음, 좋은 예법을 훈련하여 인간됨의 기초를 형성하라 하였다.

한편 21세기에 지향하는 인간됨을 정의하고자 할 때, 1980년 7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글귀가 눈에 띈다(happyceo@hunet.co.kr). 미각, 패션, 장식, 오락, 교육, 교통, 심리학, 로렌스, 요리, 디자인, 문학, 의약, 공예, 미술, 원예, 경제, 정치, 이웃과의 관계, 소아의학, 노인의학, 접대, 관리, 구매, 법률, 회계, 종교, 그리고 경영 등, 이 전부를 해치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주부”라고 주장한 글귀이다. 이 글귀에 나타난 주부의 특별한 역량을 앞에 두고서, 유아기에 모든 지식의 기초를 형성하라고 주문한 400년 전 코메니우스의 언급을 떠올림은 무리일까? 17세기 코메니우스로부터 20세기 아동권리선언을 거쳐 오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유아를 위한 교육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까닭이다.

21세기 인간됨에 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미래형 인재로서 회자되는 10 가지 유형(naver.com)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는 분위기를 즐겁게 할 줄 알며(돌고래형),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잘하고(청개구리형),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행복을 느낄 줄 알며(열정형),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긍정형),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창의형),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용기를 지니며(실천형),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고(문제해결형), IQ보다 EQ가 뛰어나며(감성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줄 알고(도전형), 그리고 도덕 수준이 높은(투명형) 사람이 미래 사회의 인재라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먼저 인간성과 인격을 갖춘 즉 ‘사람 됨됨이’를 갖춘 존경할 만하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훌륭한 사람’을 목표로 삼자는 권고도 있다(홍강의, 2007).

과연 2007년 현재 보육시설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보육 시설이라면 0세에서 6세에 이르는 영유아들이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을 물론 21세기 미래 한국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 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은 오늘의 특별 활동과 관련한 논의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중착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2만 9천여 보육기관에서 99만에 가까운 0세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보호받고 양육되며 교육받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특별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는 지부터 재차 철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고려는 결코 재정적 순익 계산에서가 아닌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이라는 특별활동의 기본 목적에서 출발하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담당강사의 인간관(사람됨의 정의), 인생관(삶의 철학), 직업관(일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봉사정신(세상을 향한 기여)에 근거한 특별활동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유아들의, 유아들에 의한, 유아들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향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특별활동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과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보고」는 보육프로그램에 있어서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육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가.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보고」에 대한 논의들

1)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용

「실태 보고」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곳(95.6%)은 실시하지 않는 곳(4.4%)보다 훨씬 많았으며 그 종류는 대체로 1~10가지 중 2가지를 실시하는 곳(27.7%)이 많았다. 특별활동 영역의 종류는 크게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외국어, 교구 이용, 기타 등 9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세부적으로는 NIE, 오르프, 가베, 호크마 등 90개의 특별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육시설 실태조사 연구(이미화 외, 2005)에서도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곳이 69.7%로 나타났으며, 1가지를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

* 육아정책개발센터가 개최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육아정책 세미나에서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의 토론 원고를 정리한 것임

활동의 실시여부 및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들(김영명, 서영숙, 2006; 서문희 외, 2002; 이기숙 외, 2002; 이선정, 2003)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특별활동의 운영 형태

특별활동의 선택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선택(35.3%)보다는 의무(64.7%)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과학, 한글, 기타, 수학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에서 만 2세는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만 3세에서 만 5세는 외국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특별활동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39.7%)에 비해 외부강사(60.3%)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음악, 체육, 외국어, 컴퓨터 관련 활동의 경우 외부의 별도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미술, 과학, 수학, 한글, 교구 이용 관련 활동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대를 보면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45.1%)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특별활동은 보육시설 내에서 실시되었으며 간혹 사유시설이나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외부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소개하지 않고 있음(82.9%)이 소개하고 있는 경우(17.1%)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태 보고」는 특별활동이 외국어 특히, 영어가 가장 많았고, 미술, 체육, 음악, 한글, 한자, 수학 등의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김법정, 2005; 서문희 외, 2002; 이기숙 외, 2002; 이미화 외, 2002; 허명순, 2007)과 유사하다. 그러나 윤기영 외(200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전통 문화 및 체험 활동이 가장 높았고, 자연체험, 요리활동, 미술, 음악, 책 만들기, 토의, 종이접기, 바느질놀이 등의 순으로 나타난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활동 담당자에 대해서 외부강사가(71%)가 보육교사(29%)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이기숙 외, 2002). 특별활동 시간대에 대해서는 오후 보육시간(35.8%)에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경숙, 1992; 이미화 외, 2005; 이은실, 2003),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이기숙 외, 2002)도 있다.

D보육정보센터 내부 자료에 의하면, 특별활동의 1회 실시시간은 20~30분 정도가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분이상이 28.3%, 10~20분정도가 7.5%로 나타났다. 20~30분정도가 가장 많다는 것에는 대체로 00출판사의 영어가 많았

다. 또한, 특별활동 실시활동 형태에도 일과 중 대그룹이 49.7%, 소그룹이 35.8%, 나머지는 기타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특별활동이 대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별활동 또는 의미있는 활동이 일어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도 대집단활동 시간(60.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유선택활동 시간(20.2%), 기타(12.5%), 방과 후(6.5%) 순으로 나타났다. 대집단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나누기, 신체활동, 동화 듣기 등과 같은 활동이 특별활동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의 강사료는 없음(35.5%), 21만원~30만원(23.5%), 11만원~20만원(14%), 1만원~10만원(10%), 31~40만원(9%), 40~50만원(5%), 50만원 이상(3%) 순으로서 강사료는 1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설이 65.5%로 나타났다.

3) 특별활동의 실시 이유

「실태 보고」에서는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를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47.5%)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요구 때문(27.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24.4%)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시설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 이유가 다소 상이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이기숙 외, 2002; 이미화 외, 2005)에서도 특별활동은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며 초등학교 준비를 생각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실시의 주된 이유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영화 외 (2003)연구에서는 교사의 업무분담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정화 외 (2003)연구에서는 재능 및 소질개발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실태 보고」 실시이유에 또 다른 잠재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특별활동의 비용

특별활동 비용에 관한 질문 중 특별활동 참가비용 수납방법은 대체적으로 매월 받는 곳(89.3%)이 가장 많았고, 특별활동비용을 받는 경우 평균은 15,591원이었으며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20,000원까지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가 18,333원으로 가장 높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활동별로 보면 특별활동비용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술 프로그램의 비용(19,588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구 이용 프로그램(17,095원), 음악(16,561원), 외국어(15,183원) 순이었다. 미술과 수학 프로그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체육, 과학, 한글, 외국어의 경우 만 0세나 만 1세의 어린 연령에 대한 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활동 교재비를 받는 비율은 전체 프로그램의 8.7%정도이며 1,000원에서 60,000원까지 그 편차가 심했고(평균 8,350원), 외국어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이미지 외 (2005)의 연구에서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의 비용(25,330원)이 가장 높고, 과학관련 프로그램의 비용(10,420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능과목에 비용이 높은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 외에도 학습지 비용을 받는 시설이 46.5%,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많게는 40,000원 이상까지 대체로 5,000원~10,000원 사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E보육정보센터 내부 자료(2006) 및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와의 면담(2007.6.26)에 의하면, 특별활동시간에 학습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40%정도, 그리고 1개 이상의 학습지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지는 교사가 직접 지도하거나 또는 방문교사가 담당하며,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원어민 배치교사가 영어학습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 우리나라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그 운영형태는 적어도 1개 이상 10개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별활동의 내용은 음악, 미술, 체육을 비롯하여 과학, 한글,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10여종에 다다르며 그 세부내용은 100여 가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활동은 대부분 원아의 귀가 시간이 각기 다른 오후보다는 오전에 실시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보육과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 담당강사의 경우도 학력, 능력, 경력, 자질 면에서 그 격차가 매우 심하다. 활동운영 형태도 보육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활동의 내용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아예 교사의 부담도 덜고 홍보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강사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여러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활동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의 차이도 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

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 교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별활동은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때, 이 문제가 어디부터 엉켜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특별활동은 ‘특별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일반, 부모의 조급함이나 인식, 나아가 가치관, 운영비와 재정, 교사의 업무, 원의 홍보 등 보육전반의 문제와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개선방안

특별활동은 무엇이며 왜 실시하는가? 특별활동은 대체로 교과와 구별되는 의미로서 상호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1998; 교육학대사전, 1999; 이경환, 함수곤, 1998). 이를 기초로 여러 연구들(김법정, 2005; 윤기영, 권미영, 2004; 이선정, 2003; 허명순, 2007)에 의하여 시간연장제, 방과후 특별활동 등과 유사한 용어로 또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어쨌든 특별활동은 기본적으로 표준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과 상호보완적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며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특별활동 운영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특별활동에 대한 정의와 개념 정립

우리는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이 무엇인가는 대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마다 그 개념차에 따라 내용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마치 유아교육이 유아를 둘러싼 모든 교육으로 오해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이다. 교육학적 개념, 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특별활동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은 ‘특별한 활동’인가? 정규 일과 이외의 활동인가? 특별하지만 일과와 연계된 활동인가? 다양성이 점차 확장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용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 가지 만 가지 특별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을 모두 ‘특별활동’이라고 생각하는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비

현재 수많은 종류의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특별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되지 않고 각 교과 영역을 따로 따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유아기 교육방법과는 상이하다. 또한 정규 보육활동 시간 중에 제공되어 오히려 일과를 바쁘게 하고 침해하는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며 유아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특히 시설, 기자재, 교구자료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육적 환경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구조화된 교구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유아의 창의성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시 유아의 흥미나 요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기준과 범위를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3)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인증 및 교육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 대부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어 유아의 발달단계나 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기능 위주의 활동을 실시하는 경향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정규 일과 이외 특별활동지도까지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로 수업준비에 차질이 있다. 하루 12시간을 대체교사 없이 하루 종일 보육하는 교사에게 특별활동을 지도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사의 근무조건 등 보육시설의 전반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특별활동이 되도록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강사를 제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올바른 보육에 대한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지

특별활동이 원의 홍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는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도 지나칠 수 없는 요인이다.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며, 왜 놀이하고 탐색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인적, 물적 교육환경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글자를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는 찬반보다는 글자를 터득하는데 시각변별력과 공간지각력, 소근육 발달이 동원되어 문해 능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한다면 글자만 쓰도록 강조하지는 않게 된다. 수 개념이 비교, 분류, 서열화의 기초개념을 통해 수를 조작하고 표상하게 됨을 이해한다면 학습지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부모의 관심사와 고민에 좀 더 다가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함께 올바른 영유아기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특별활동의 내용과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

무엇보다도 정규 보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의 범위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유아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사도 특별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현재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참여를 강요하게 되거나 정규 보육과정을 침범 또는 부실하게 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핵은 내용의 선정과 방법의 조직이므로 교육적 내용을 선정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보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경험, 견학 또는 체험학습, 일과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보충 또는 심화함으로써 보다 질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6) 특별활동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

특별활동 자체만이 아니라 종일반과의 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 원의 효율적 운영, 부모의 요구 및 가치,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는 왜 특별활동을 원하는가? 또는 특별활동을 좋아하는 이유와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같은 연구 역시 시의 적절하다. 종일반 경험의 의미(배지희, 이봉선, 탁옥경, 2005)와 같이 특별활동의 의미 등 현상학적 접근이나 사회문화에 적합한가? 와 같은 탐색(김영명, 서영숙, 2006)도 요구된다.

보육시설의 규모가 작은 곳은 대체로 혼합연령집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설의 규모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다.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혼합연령에 가능한가? 단일연령에 적합한가? 「실태 보고」에서도 만 0세~2세는 교구를 이용하며, 3~5세는 외국어를 특별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적합성 및

개인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별활동과 부모의 요구, 선호도가 있는 특별활동, 특별활동에 대한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보다 많은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 지자체별 지원 및 연구기반 조성 과 활성화

학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의 비용,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문제 모두 행·재정과 관련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행정감사는 엄격하게 실시하면서도 프로그램 질 관리는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시, 군, 읍 단위의 크고 작은 소모임 집단을 활성화하고 특별활동 시범공개, 장학협의, 멘토링 등을 통하여 질적인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종일반의 맥락에서 다각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즉, 종일반 유아가 반일반 유아보다 수동적 대처 중 ‘감각적 소모’의 대처 전략이 높게 나타나 종일반 유아의 정서적 위로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거나(안지영, 한진완, 김성숙, 이은영, 2007), 종일반 연구가 주로 신체, 인지, 사회적 측면을 입증한 반면 정서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배지희 외, 2005)이라는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가 지역사회의 자기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실천적 지식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탐구하도록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8) 활동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탐색

전통과 다문화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어떤 것이 더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세계시민으로서 언어표현력과 관계적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하는 교육적 탐색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문화에 대한 사고와 지혜의 안목을 넓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별활동은 없는가? 유아가 기쁘게 참여하고 부모와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시설의 운영자에게도 효율적인 ‘특별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 특별활동으로 가치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탐색의 결과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넓어질수록 ‘특별활동’이라는 교육적 소재는 그야말로 교육적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 맺는말

대다수 보육시설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이 주관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활동’이 되고 있다. 현장의 시설장과 교사들의 회의와 혼란을 줄이고 보다 교육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자리잡기 위해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3. 특별활동 실시상의 고려점*

가.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드높다. 우리나라는 전인발달이라는 목표 아래 열린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과 교육만큼은 전인발달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실행할 것으로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초등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사교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러한 현상은 점차 그 연령이 하향화 되어 상급학교에 못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목적은 영유아를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교육의 목적은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이 사회적 성공이나 지위 또는 계층 상승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조기교육을 통해 생의 초기부터 자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은 사회계층 및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은 각종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을 유아교육기관에 들여와서 특별활동으로 강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교육 풍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주입식,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영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개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성인사회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일부 분야의

* 육아정책개발센터가 개최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육아정책 세미나에서 이기숙(이화여린이연구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토론 원고를 정리한 것임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보육현장에서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 특별활동이란 발제 원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그 개념 정의조차 확실하지 않고 있으며 흔히 조기·특기교육, 시간 연장제 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 방과 후 활동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특별활동이란 교과학습 이외의 여러 가지 자치활동내지는 봉사, 행사활동을 뜻함으로써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위주의 특별활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동안 발달적으로,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조기·특기교육은 영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며, 조화로운 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조기·특기교육의 열풍은 영유아기를 왜곡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유아 보육/교육을 하기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해왔다(우남희 외, 2005; 이기숙 외, 2001).

더구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을 수강한 유아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학습지 시장 규모도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1). 교육대상의 연령도 만 1, 2세 영아들로 하향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보고」의 발제 연구를 접하고 토론자가 우려하는 점은 특별활동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 보다 다음과 같은 점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 (2) 과거에 비해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다(0세부터 시작됨).
- (3) 시간대가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4) 부모는 물론 원장과 교사들도 특별활동이 원아모집을 위한 방편이 아닌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5)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보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 (6) 보육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국공립, 민간 등 유형에 상관없이 실시되고 있다.
- (7) 과거에 비해 실시되는 가지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 고찰

본 토론자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일본과 중국과의 비교 연구도 수행한바 있다. (이기숙 외, 2001; 이기숙 외 2002, 이기숙 외 2004, 이기숙 외, 2006). 토론을 위해 그 동안의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특히 전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2,600명과 사립유치원 교사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조기특기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1명을 대상으로 하루일과를 추적 관찰하고 학부모, 유아교사, 원장 인터뷰와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1) 전체적 경향

- ①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중 상당수(88%)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3~4가지 이상을 실시하는 곳이 58.3%에 달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 실시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 가지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②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영어, 미술, 체육 등이었다. 특별활동은 주로 정규 수업시간에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외부강사가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경우 교사가 보조자로 참여하거나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아지도에서 일관성과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은 주로 대집단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 ③ 교사들은 특별활동을 담당자는 반드시 유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지도자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에서 특별활동을 정규 수업시간에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며, 유아들이 받고 있는 특별활동의 가지 수가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특별활동의 문제점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지적한 것은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영유아의 부담 가중 및 또래 관계 단절, 담임교사의 부담 가중 및 사기 저하, 특별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 ①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 ② 유아의 부담 가중 및 또래관계 단절
- ③ 담임교사의 부담 가중 및 사기 저하
- ④ 특별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특별 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특별활동담당자들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수업시간에 늦거나 결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 강사라고는 하지만 유아교육전공자가 아니어서 언행이나 수업진행 면에서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문자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등 가시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특별활동이 성행되고 있어 영유아 보육기관이 각종 유사 학원과 같은 체제로 왜곡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기관이 유사 학원 등과 구별이 어려워지며 점차 그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이 버젓이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인 보육과 교육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느 유치원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 30년간 올바른 영유아교육을 위해 힘써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여가면서 특기교육 해주기를 원하고, 오후에도 꼭 찬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과학나라, 색종이 접기, 영어 방문교사, 한문, 숫자와 한글 지도, 영재교육, 학습지 등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 문을 닫게 될는지...”

영유아기 자녀에게 조기·특기 교육의 필요성 및 시기, 비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빠르다고 인식했으며, 부모들은 조기·특기 교육의 종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특기 교육의 비용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유아 교육과정

부모들은 또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기보다 각종 특별활동들로 하루 일과를 채우며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어떤 TV프로그램에서 ‘나는 외국인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서 놀랐다. 나도

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마음이 착잡하다. 나도 내 아이에게 조국의 자긍심은 뒷전이고 영어만이 고유한 어떤 민족의 언어인 마냥 왜곡되어 가르치진 않았는지 다시한번 돌아보게 했다. 우리 것은 뒷전이고 너무 외래어 외국어만을 강조 하거나 않았는지…”

3) 부모들이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

부모들은 그 이유로 주위에서 많이 시키므로 불안하기 때문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조기·특기교육을 통해 다 방면의 기초 능력과 소양을 닦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4) 부모들의 요구

부모들은 유아들이 전인발달을 이루며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실현되면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학원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될 것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정규 보육 프로그램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천할 것이고 이를지도, 감독, 평가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이 과학적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부모들은 생각하였다.

5)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의견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산만하다. 특기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수업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다. 또래를 약 올리고 따돌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다. 미리 배운 아이들은 지루하니까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지겨워한다. 엄마의 열의가 높을수록 아이는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불안, 의욕이 없어 보인다. 집에서 “화장실 가도 돼요?”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사립 초등학교 교사)

“1학년 초 교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어린이들의 대답이 “나 알아요, 그거”, “다 배웠는데…”, “아, 너무 쉬워!” 등이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며, 교사도 맥이 빠진다.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알면 무조건 잘 아는 것인 줄 안다. 수학이 심한 편이다. 답이 나오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어 ‘13-8=?’이라는 문제를 주면 금방 ‘5’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5가 되었지?’라고 물으면, 그 물음에

는 관심이 없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중략)”

일본은 문부성 생애 학습국의 위촉을 받아 일본 국립 교육정책 연구소에서 「생애 학습 활동의 촉진에 관한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유아조기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기교육의 실태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위촉기간 1998~2000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문부성의 계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간의 비교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일본 부모들에게 유치원, 보육소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일 하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마음껏 놀기’, ‘올바르게 말하기’,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사립소학교의 입시를 위해 준비하기’로 95% 이상의 부모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소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일본 부모들도 우리와 같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유치원이나 보육소에서는 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성발달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초등 교육을 위한 준비나 학문적인 기술, 특히 형식적인 글자나 수 교육 등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유아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유아들이 조기·특기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더 늦으며, 그 비율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특기 교육의 내용도 예·체능 계통으로써 우리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토론자가 2006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 중국 일본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연구에서 유아들의 조기/특기활동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유아들 중 한국은 72.6%가, 일본은 61.7%, 중국은 64.6%가 정규교육 이외의 조기/특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특기 활동유형으로 세 국가 모두 예체능 관련 활동과 영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학습지를 하는 비율이 일본,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 학습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이후 초등학교 학습과 관련된 기초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날마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 특별활동 실시에서 고려되어야 할 논의점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의 문제해결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영유아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과 보육현장의 차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과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차이 등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이러한 특별활동은 없어지기 보다는 점차 확대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논의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특별활동 자체만의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들이 특별활동에 의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문제, 보육과정의 운영문제, 연령별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의 문제,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문제, 충분한 인적 자원의 여부, 교사 자질의 문제, 물리적 환경의 문제 등등과 연결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그 당위성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들이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부모와 유아교사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각종 조기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될 때 현장과 부모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영유아기의 특별활동이 자녀의 재능 및 소질개발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세분화 되고 심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없이 막연한 기대감이 특별활동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파행적으로 치닫는 조기교육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시키고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보육체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별활동은 이제 비교적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은 국공립을 포함하여, 민간이나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육시설의 질적 요소에서 통합적 보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교

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과거와 달리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연구에서 학부모의 요구나 원아모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특별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정착화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제제도 없다는 것은 보육시설의 질적 프로그램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과 관계가 없는 학과에서 이러한 강사들을 배출해 내는 여러 가지 자격증 내지는 학과들이 생기고 있음도 특별활동 강사수급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무용과, 체육과, 국문과, 영문과 등등에서 각각 발레, 유아레크리에이션지도자, 동화 구연 교사, 유아 영어 교사 등의 명칭으로 강사들이 나오고 있다.

다섯째, 특별활동을 어쩔 수 없이 실시해야 한다면 영유아의 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보조 활동이 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본 연구 결과는 그 연령이 0세 까지도 하향화 되어 한글, 외국어 등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활동들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의 실시 시간 역시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은 또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적어도 오전시간에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통합적인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별(특기)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좀 더 확실해 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 것인가가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이란 초중등교육의 특별활동과는 그 개념이 다른 양상이며 사교육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어느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색 도형, 도미노, 예절, 주말농장, 시찌다, 프로젝트, 발도로프, 단전호흡 등등이 과연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학부모들에게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조기교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들 즉, 유아의 발달 장애, 교육의 비효율성,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점들을 홍보하여 보육시설이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으로 규제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활동비의 수납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서울시 2007년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원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서 강요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하고 있으나 모든 원아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내 아이만 빠지게 할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이번 연구에서는 특별활동비에 교재비까지 따로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수납은 결국 특별활동을 부추기며 결국 사교육의 형태를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쉽다.

아홉째,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육을 하기 위하여 정부와 연계된 평가 인증제를 더욱 강화 확대하여 기관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별활동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어느 분야, 어느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기 적절하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다만 앞으로 본 연구가 전화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점과 20인 이하의 시설이 많았던 점, 비교적 어린 연령이 많았던 점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보육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특별활동이 더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유아 조기·특기교육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각성과 보육시설의 인식전환*

: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가. “강남엄마 따라잡기” 에 대한 공분 혹은 공감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화제이다. 강남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엄마들의 황당한 극성을 풍자하겠다는 것이 의도인 듯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드라마를 보고 누구나 혀를 차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면 어찌되었든 실력은 좋아지는 것은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각기 생각도 입장도 다르다. 옹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특별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기본적인 유치원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통 사교육 혹은 특기교육이라고 말해지는 활동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 특별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아이들은 기본활동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인가? 아니면 지나치지 않다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해도 좋다는가? 또한 보육시설이 이러한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양성화하는 것이 낫다인가?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연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를 해독해내거나 전망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 예를 들어 다음 질문들 중 답을 고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 (1) 영유아기의 특별활동, 즉 특기적성교육이나 과외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 (2) 영유아기의 특별활동 자체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육아정책개발센터가 개최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육아정책 세미나에서 황윤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의 토론원고를 정리한 내용임

** 미국 알바노 프리스쿨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생활 해온 크리스 메르코 글리아노가 쓴 책의 제목이다.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과 진정한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 (3)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좋다.
- (4) 특별활동은 보육시설의 활동을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 (5)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므로 확대해야한다.

나. 바람직하지 않지만 필요하다(?)

특별활동에 대한 논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기가 쉬운 주제이다.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논의들과 실태조사의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보육시설의 기관장들이나 교사들은 특별활동은 유아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발견하려는 의미에서 진행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전문가들 역시 특별활동의 내용이 유아들의 발달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원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특별활동을 하는 이유가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이고,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활동의 내용을 보면 외국어(영어가 가장 많다)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외국어가 영유아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는 셈이다(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의 현실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내용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면을 거칠게 부각시켜 보았다).

영유아기의 특별활동에서 외국어가, 특히 영어가 이토록 환대받는 이유가 과연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고민한 결과일까? “바람직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말은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진행여부와 활동의 내용이 보육 이외의 변수에 의해 압박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 달콤 살벌한 유혹, 특별활동

특별활동은, 말하자면 간식이다. 밥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특별활동의 유무가 보육시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객이 바뀐 셈이다. 과자가 더 달콤하고 맛이 강렬하듯 특별활동이 더 재미있고 효과도 눈에 보인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자가 달콤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유혹이듯, 특별활동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의 기

본활동을 해치는 살벌한 유혹이다.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이 해야 할 제 몫의 활동이 있다.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아무리 풍부하게 하고 잘 한들 그것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누려야 할 생활이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더 잘하게 되면 이미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특별활동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대처하는가는 보육시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살벌한 유혹이다.

라. 과유불급(過猶不及) :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다. 사실 특별활동이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나 성과는 그다지 증명된 바가 없다.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은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지니까*”라기 보다는 “안하면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 혹은 불안감이라는 것이 묘한 구석이 있어서, 계속 커지는 성질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특별활동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면서 늘어나고, 부모 입장에서나 보육시설 입장에서나 계속 과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별활동이 바람직하나 아니냐의 선을 넘게 된다. 특별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활동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과한 자극이 되는 것이다. 과한 자극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여도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특별활동에 대한 논의는 보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넘지 말아야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러해야한다.

마. 줄탁동시(茁啄同時) : 안팎에서 서로 쫓아야 병아리가 나온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쫓아야 한다고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인 셈이다. 오늘 공청회가 특별활동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에 대한 토론이라고 해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생각이 난 말이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계속 확대되는 특별활동에 대한 책임이나 대안이 부모에게만 혹은 보육시설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 보육시설이 원아모집의 방편으로 삼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부모의 각성과 보육시설의 인식전환이 동

* 좋아진다는 의미도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말이기도 하다.

시에 이루어져야한다.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교육열풍, 특히 입시와 영어에 대한 광풍과 이어진다. 보육시설이 본래의 보육의 몫을 찾지 못하고 그 광적인 열기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게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들이다. 영유아기는 그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기이기도하지만 그 나이를 누릴 권리가 더 큰 시기이다.

VI

요약 및 결론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별활동의 실시에 대한 전문가와 보육현장의 견해차이, 보육시설 운영자와 수요자의 입장차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충분한 인적 자원의 배치 등 특별활동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 실태가 보육현장의 현주소임을 인식하되 보육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보육시설의 대부분(95.4%)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2)에서 보육시설의 74.6%가 1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 전국보육시설 실태조사(이미화 외, 2005)에서 보육시설의 69.7%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나 그 비율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보육시설 중 절반이 넘는 보육시설(53.0%)에서는 특별활동을 위하여 특별활동비나 교재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화 등(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무료로 실시하는 비율은 본 조사에서 42.4%로 나타나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16.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시설이 많아져 전체 특별활동의 실시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종류는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27.7%), 그 다음은 2가지, 4가지, 1가지, 5가지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문희 등(2002)의 연구에서 2가지 이상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2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가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18.2%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5세가 가장 높았고(99.4%), 만 0세가 가장 낮았다(14.5%).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어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교구 이용, 체육,

음악, 미술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허명순(2007)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만 5세 유아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이 영어, 한자, 한글, 수학 등 교과중심의 지적 교육 위주이며, 예체능 분야에서는 체육, 수영, 미술 순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만 5세도 전체적인 양상과 유사하여 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예체능 위주의 특별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활동은 선택이기 보다는 의무로 실시하는 곳이 많았으며, 특별활동의 담당자는 보육교사보다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별활동의 실시 시간대는 전체적으로 오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오전과 오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오후에 실시하는 경우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화(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오전에 실시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 선택보다는 의무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활동이 일과시간에 관계없이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로, 또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장이 유아가 특별활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되지 않으며, 특별활동을 받는 유아가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이 유아의 인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정화 외, 2004)와는 상반된 결과로 특별활동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을 위한 비용을 따로 수납하는 경우 특별활동 하나당 수납비용 평균은 15,591원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3가지 특별활동에 참가하고, 특별활동의 38%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수납한다고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약 18,000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화 등(2005)의 연구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참가비용이 10,420원에서 25,330원 정도까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특별활동비의 최소비용이 기타에서 1,000원, 최대비용이 외국어에서 120,000원으로 나타나, 특별활동 종류와 기관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많은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프로그램 안에 영유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시켜야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별도의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좋은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보육활동을 기본 보육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곳이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그동안 보육시설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육과정 없이 지역이나 기관별로 각각 다양한 교육자료와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활동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 보편적 보육 내용을 결정하여 범령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배우고 경험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실체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제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과 보육내용은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하루일과에 의하여 어떻게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래서 영유아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4인의 보육전문가들은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크게는 바람직한 보육에 대한 부모나 사회의 지지,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 등의 요구가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특별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방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규명하고 수용가능선을 정해야 하고, 특별활동의 비용·참여방법·담당자·시간·장소 등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요인분석, 특별활동의 영향 등 평가에 대하여 고려하고 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육전문가들의 견해에서 특별활동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 실시한다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과도하게 실시하였을 때 영유아에게 미치는 피해와 보육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 등 보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고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보육시설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보육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오늘날의 영유아들에게 보육시설에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영유아의 전

인적인 발달에 있을 것이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의 기초를 이루는 시기로서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모든 측면의 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전인아동이 보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내용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내용은 보육현장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결국 보육프로그램의 정상화, 내실화가 바로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1997).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2005). 유아교육법.
- 교육인적자원부(2005). 유아교육시행계획.
- 국립교육평가원(1997). 초·중학교 특별활동 운영·평가 실태분석 연구.
- 김경숙(1992). 유치원 종일제 교육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연(2005). 유치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법정(2005).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어머니 요구 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서영숙(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 적합성과 사회·문화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15-136.
- 나정·류소희·고미경·성화영(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3 :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박지연·이숙현·백진아(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관계학회, 10(1), 157-179.
- 박희원(2000). 구립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요구조사: 강북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이봉선·탁옥경(2005).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237-258.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정책보고서 2002-3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지영·한진원·김성숙·이은영(2007).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대처행동 유형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07-128.
- 양옥승·김영실·김진영·김현희(2001). 유아 영어교육의 적합성. 한국교육, 28(2), 347-367.

- 여성가족부(2006). 영유아보육법령집.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7-1호.
- 오효선(2001). 취학전 유아의 조기교육 실태 조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권리 연구, 8(2), 189-207.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윤기영·권미영(2004). 유치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원논총, 9, 117-136.
- 이경환·함수근(1998).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집 2권. 서울: 교문사.
- 이기숙·박은혜·김희진·김현정(2004). 우리나라 유아의 하루일과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 24권 제3호, 163-188.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교육부.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한국 유아교육 학회. 제 22권 제 3호, 153-171.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학회지, 23(4), 137-152.
-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6). 한국, 중국, 일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 12권 제 5호(특집호), 81-98.
- 이명조·정선아·이정화(2003).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 집문당.
- 이미화·이미화·장혜경·김경미·황정임·김영란·김영주·김혜금·나종혜·문혁준·박금희·박응임·이완정·이숙·류임량·이수현(2005). 2004년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연구보고 2005-04. 여성가족부.
- 이선정(2003). 유치원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2003). 아동의 발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 2003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의 권리, 47-64. 아동권리학회.
- 이은실(2003). 유치원 종일제 학급 운영 실태 연구: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정선아·이명조(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0(2), 85-118.
- 이정화·정선아(2004). 사립 유치원 원장이 바라보는 특별활동 운영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8(4), 69-87.
- 통계청(2001). 교육사회부문조사.
- 허명순(2007).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 2007-09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07년 9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